

석사학위논문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Word
Order for Vietnamese at the Beginning Level

202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응웬티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Word
Order for Vietnamese at the Beginning Level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린

응웬티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노정은 (인)

심사위원 김윤주 (인)

심사위원 이은희 (인)

국 문 초 록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웹 티 린

본 논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여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함으로써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의 차이점을 밝히고, 한·베 어순의 차이로 인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어순상의 특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그에 따라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하였다. 우선, 어순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을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 다음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나타나 어순 오류를 찾아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어순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순 차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이 무슨 것인지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순 교육 원리를 살펴보고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산정하였다.

5장에서는 맺음말로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어순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필요하다고 파악하게 되었다. 어순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본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서술부의 문장 성분 간의 어순 배열과 서술부 내 부사구 안의 문법 항목에 관한 어순 오류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어순 차이, 기본 어순, 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어순, 대조, 교육 내용 선정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3
1.2.1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 연구	3
1.2.2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4
1.2.3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5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	9
2.1 어순의 개념 및 유형	9
2.1.1 어순의 개념	9
2.1.2 어순의 유형	10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13
2.2.1 한국어의 기본 문형	13
2.2.1.1 한국어의 문장 성분	13
2.2.1.2 한국어의 기본 문형	16
2.2.2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17
2.2.2.1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	17
2.2.2.2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25
2.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대조	27
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	30
2.3.1 기본 어순 차이	30
2.3.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차이	34
2.3.3 부속성분 간의 어순 차이	39
2.3.4 어순의 변화 가능성	43
III.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 분석	48

3.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48
3.1.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48
3.1.2 어순 오류 판정 및 분석틀	51
3.2 분석 결과	56
3.2.1 글쓰기 분석 결과	56
3.2.1.1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57
3.2.1.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59
3.2.1.3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70
3.2.2 구두 인터뷰 분석 결과	73
3.2.2.1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74
3.2.2.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75
3.2.2.3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78
IV.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 선정	81
4.1 한국어 어순 교육의 원리와 목표	81
4.2 초급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84
4.2.1 어순 차이	85
4.2.2 기본 어순	86
4.2.3 수식어-피수식어 어순	91
4.2.3.1 관형어 수식 어순	91
4.2.3.2 부사어 수식 어순	92
V. 결 론	96
참 고 문 헌	98
ABSTRACT	102

표 목 차

[표 2-1] Greenberg의 여섯 가지 언어 유형	11
[표 2-2] Lehmann의 성분 순서의 상호 관련성	12
[표 2-3] 한국어의 서술어의 자릿수	14
[표 2-4] 한국어의 문형	16
[표 2-5] 한국어의 기본 문형	17
[표 2-6] 베트남어 보어의 종류	20
[표 2-7] 베트남어 관형어의 종류	22
[표 2-8] 베트남어의 부사어의 종류	22
[표 2-9] 베트남어의 독립어의 종류	24
[표 2-10] 베트남어의 문형	25
[표 2-11]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26
[표 2-12]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 성분의 용어 대조	27
[표 2-13]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은 한국어와 동일한 문장성분 명칭이 있을 경우	29
[표 2-14] 한국어와 베트남어 기본 문장 성분의 어순	34
[표 2-15] 한국어와 베트남어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38
[표 2-16]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속성분 간의 어순	42
[표 3-1] 오류 범주별 비교	52
[표 3-2] 오류 유형 비교	53
[표 3-3] 한국어 어순의 분류 및 분석틀	55
[표 3-4]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 오류 문장	58
[표 3-5] 관형어의 수식 어순 오류를 지닌 문장	59
[표 3-6] 부사어의 수식 어순 오류를 지닌 문장	61
[표 3-7] 부사어 문두에 놓고 쓰이는 문장	67
[표 3-8] 부사어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 오류 문장	71
[표 3-9]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	72
[표 3-10]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74

[표 3-11] 관형어 수식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75
[표 3-12] 부사어 수식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76
[표 3-13] 부사어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79
[표 3-14] 구두 인터뷰에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	80
[표 4-1] 장미라(2008)의 초급 단계 어순 교육 내용	84
[표 4-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본 어순 문형	88
[표 4-3] 의미에 따른 부사 분류	92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유형과 특징을 고찰하여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을 대조함으로써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의 차이점을 밝히고, 한·베 어순의 차이로 인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어순상의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에 따라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베트남 국교가 수립된 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다른 점이 많은 언어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지닌다. 하나는 두 언어가 형태·통사론적으로 다르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어는 성조언어이고 한국어는 비성조 언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음절 구성과 발음, 구절, 문장 유형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두 언어의 차이점은 문장 성분이 배열된 순서, 즉 어순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어는 타동사문의 구조로 보아 동사 서술어가 주어 및 목적어의 뒤에 나타나는 SOV¹⁾언어 유형에 속하고 격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비교적 융통성을 보인다. 반면에 베트남어는 동사 서술어가 주어 뒤, 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SVO 언어 유형에 속하고 어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달라진다.

(1)예문에서 한국어는 ①에서는 주어 ‘어머니’, 목적어 ‘아이’, 서술어

1) 주어(S), 목적어(O), 서술어(V)를 말한다.

‘사랑하다’의 어순을 지니고 ②에서는 주어 ‘어머니’와 목적어 ‘아이’의 어순이 바뀌었지만 격조사로 인해 ①과 ②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2)예문에서 베트남어의 경우는 주어 ‘mẹ’, 서술어 ‘yêu’, 목적어 ‘con’의 어순을 지닌 ①과 주어 ‘mẹ’와 목적어 ‘con’의 위치가 바뀐 ②에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1) ①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한다.

② 아이를 어머니는 사랑한다.

2) ① Mẹ yêu con.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하다 아이

② Con yêu mẹ.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아이 사랑하다 어머니

그래서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 어순에 익숙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장을 읽을 때나 한국어로 말하고 쓸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 등과 같은 표현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베 어순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한국인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음운, 발음, 높임법 등에 치우쳐져 있고 어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문장을 완성해 표현하려면 어순을 알아야 하고 어순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베트남어의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과 다르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유창하게 문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문장을 만들기 쉽다.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의 특성상 초급부터 어순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도 어순에 집중하여 배울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급 단계부터 정확한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초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를 다룬 연구물들을 살펴보고 다음에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들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검토하겠다.

1.2.1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 연구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연구는 적은 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을 비교·대조한 연구는 안경환(1996), 흰상(2001), 전수언프영(2004), 썬티타인(2015), Nguyen Bao Yen(2018) 등이 있다.

안경환(1996)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구, 문장의 어순을 대조하기를 통해 한국어의 핵이 문장 끝에 위치하는 반면에 베트남어의 핵이 문장 가운데에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실례가 간단하고 많지 않아서 보완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흰상(2001)은 합성어 및 구의 구성과 문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 연구하였다. 그는 두 언어의 합성어,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의 구성에 대해 비교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도 안경환(1996)의 연구처럼 실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내용을 이해가 어렵고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수언프영(2004)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는 두 언어의 합성어의 어순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어

의 합성어는 세 가지(종속, 대등과 반복 합성어)가 있지만 베트남어의 합성어는 두 가지(종속, 대등적 합성어)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언어의 대등적 합성어 순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종속합성어의 순서는 완전히 반대이다. 그 밖에 그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명사구, 동사구와 형용사구의 어순 배열을 비교하기도 하고 단문, 복문의 문장 위치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편티타인(2015)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구의 어순 및 문장 어순 배열을 중심으로 대조·분석하는 것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두 언어의 문장 성분의 배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양국 언어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Nguyen Bao Yen(2018)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영어의 어순과 관련하여 유형론적으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세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의 명사에 관한 어순과 술어에 관한 어순을 분석하고 예문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이동해도 의미가 안 바뀌어지는 반면에 영어와 베트남어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핵어-보충어의 위치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핵어 후치형 언어이며, 영어와 베트남어는 핵어 전치형 언어에 속한다.

1.2.2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한국어 어순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수진(1999), 박성숙(2010), 심방(2011), 왕남(2012), 임은진(2013), 김정은(2013), 신혜선(2013), 정은(2016), 영정정(2018), 황경운(2022) 등이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순교육에 관한 연구로 박성숙(2010)은 한국어 어순의 특징을 살펴보고 총 22개국 143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과 학습자 모국어의 어순 유형별 오류양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 모국어의 어순 유형이 SOV, SVO1, SVO2, VOS과 기타 유형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고²⁾ 학습자

가 어떤 영역에서 학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지 살펴보고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순 오류 양상을 어순 유형별로 분석한 후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응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한편 임은지(2013)은 한국어 교재 분석과 이해도 측정을 통한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순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고정어순과 자유어순을 구분하고 어순 교육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대조·비교를 통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로 신혜선(2013)은 영어권 학생들이나 영어를 매개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조 언어학과 입력 강화 이론을 이용하여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점을 활자 조작이나 구문도해 등 시각적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지도하며, 학습자들이 직접 문장을 분석하고 도해하는 등 효율적인 어순 교육 방안을 만들어 어순 교육에 이바지한 것이다. 한편 정은(2016)은 유형론적 관점에서 SOV 유형의 한국어와 대칭적 통사구조를 가진 SVO 유형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영어권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범하는 어순 오류 양상을 파악해 오류의 유형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영어권 초급 학습자들이 어순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 대조·비교를 통한 한국어 어순교육에 관한 연구는 가장 많다. 영정정(2018)은 종합적으로 한·중 어순 대조와 비교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심방(2011), 왕남(2012), 임은짐(2013), 황경운(2022)은 한국어와 중국어 어순을 대조하여 교재 분석하는 것을 통해 어순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어순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인 한국어 어순교육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1.2.3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2) 박성숙(2010)에 따르면 SVO1유형은 중국어권 학습자에 해당하고 SVO2유형은 영어권 학습자로 미국, 케냐, 필리핀 등에 속한다. VSO 유형은 아랍에미리트이고, 기타 유형은 정확하게 어순 유형을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는 언어 어순 유형이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을 다룬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문장 구성 교육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Do Mai Truong Ca(2019)와 박연숙(2019) 등이 있다.

Do Mai Truong Ca(2019)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구성 성분을 비교하고 한국어 문장구성 교육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의 성분, 문장의 어순, 문장의 유형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어 문장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쓰기 영역과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문장구성 교육 현상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관한 다음에 문장 구성 교육에 대해 제안하였다.

박연숙(2019)은 학문 목적 베트남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장 구성 교육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기본 문형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 연세 한국어, 뉴스강 한국어, 세종 한국어 등 총5의 교재를 분석하여 기본 문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알아본 것이다. 그 후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통사적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형을 대조하여 교육에 활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베트남어의 전치사를 통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유사점을 교육에 활용한 것이다. 다음에 초급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형 중 한국어 문장 구조를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문형을 선별하고 베트남어와의 차이로 혼동하기 쉬운 문형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형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동일한 배치고사 결과로 분반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통해 교육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전반적 특성을 비교·대조하거나 한국어 어순 교육에 관한 논문은 비교적 많이 발표 되었지만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단히 심화된 한·베 교류에 비해 현재까지의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논문 중에도 대부분의 논문은 한국어와 베트남

남어를 종합적으로 대조·비교하는 것이고 한·베 어순을 비교·대하거나 실제 교수 학습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논문은 많지 않다.

어순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문법 교수 학습의 중심이며 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의 핵심이다. 어순은 문법, 어의, 언어 사용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들 간에는 구별도 있고 연계도 있다. 문장은 흔히 문장 성분을 기초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 기본 어순은 주어-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그리고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과정에서 문장은 흔히 기초구조에 기타성분이 첨가되거나 도치, 생략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어순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어순에 대한 연구는 구조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미비하여,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비교하면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어순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 본고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유형을 살펴보고 양국 언어의 어순을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 후에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 차이에 의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자주 범할 수 있는 오류와 특징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국 언어의 어순 차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어와 베트남

어의 어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어순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세 가지 주요 문장성분 주어(S), 서술어(V), 목적어(O)로 이루어지는 기본 어순을 중심으로 어순 유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부속성분 간의 어순, 어순의 변화 가능성 예문을 통해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할 것이다.

제3장은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찾은 후에 그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과제를 수집한 후에 두 언어의 어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와 베트남어의 어순상의 특성을 지니는 문장을 찾을 것이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가 어순상의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을 찾아보고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순상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두 인터뷰를 추가 진행할 것이다.

제4장은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으로, 초급 단계의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 어순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급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

2.1 어순의 개념 및 유형

2.1.1 어순의 개념

어순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의 고조는 Greenberg(1963)가 창시한 어순 유형론(word order typology)에서 비롯된다. Greenberg는 어순(word order)은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 그러나 Comrie(1981: 80-81)는 ‘word order’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그보다 ‘constituent order’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⁴⁾. 왜냐하면 어순의 문제에서 단어뿐만 아니라 구, 조사나 어미,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 구보다 더 큰 단위인 절 등 다양한 성분의 상대적 순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Comrie(1989: 86)에 의하면 어순은 단순한 단어들의 배열이 아니라, 구성성분(constituent)의 순서를 의미한다.

어순은 ‘word order’를 번역한 것이지만 실제 어순 연구에 있어서는 서로 차원이 다른 범위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간 어순에서 다루어진 연구로는 복합어의 어근이나 접사의 배열 현상에 대해 형태·의미론적으로 접근한 것뿐만 아니라 구, 문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통사적 단위(조사나 어미)의 배열 현상에 대해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있다. 이런 연구를 보면 어순은 단지 ‘단어의 배열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3) 현완송(1998:283)에서 인용

4) 콕새라(2009:47)에서 인용

김동식(2000)에 의하면 어느 경우든 어순이란 문장의 기본적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의 성분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분들의 층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순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라고 나타나 있다. 한국어에서 어절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은 그 안의 성분의 배치·결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준수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순은 '어순'을 말 그대로 단어의 순서가 아닌, 문장에서 나타나는 말의 순서라고 본다. 즉, 어순을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 성분과 같은 구성요소의 일정한 순서라고 보겠다.

2.1.2 어순의 유형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⁵⁾. 현대 언어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연구 경향 중 하나는 다양한 언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어유형론은 언어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언어지는 형식적 속성들에 기초하여 언어들을 구분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⁶⁾.

김기혁(2008)또한 인간 언어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언어들 사이의 차이에 어떤 규칙적인 유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를 유형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론의 관점에서 언어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이 어순이라고 보았다.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 어순은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만을 고려한 어순이다. 즉, 문장에서 주어(S), 목적어 (O), 동사 (V)의 세 가지 주요 성분의 어순을 기본 어순이라고 한다. 세계의 언어들은 주어, 목적어, 동사를 배열하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5) 에스놀로그(Ethnologue, <https://www.ethnologue.com>), 2019 참고.

6) 콕새라(2009: 47)에서 인용.

Greenberg(1963)은 30개 언어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기본어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⁷⁾. S, O, V의 논리적 배열은 SOV, SVO, VSO, VOS, OVS, OSV의 여섯 유형이 있는데 세계 언어를 이러한 유형으로 보면 <표2-1>과 같은 비중을 보인다.

<표2-1> Greenberg의 여섯 가지 언어 유형

유형 I	SOV	45%
유형 II	SVO	35%
유형 III	VSO	19%
유형 IV	VOS	2%
유형 V	OVS	-
유형 VI	OSV	-

Greenberg는 논리적으로 6가지 언어유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어가 주어의 앞에 자리하는 일⁸⁾이 별로 없기 때문에 SOV, SVO, VSO가 보편적인 유형이다. 또한 이 세 가지 언어 유형 가운데에도 VSO의 유형은 별로 없고 언어 유형의 약 80%가 SOV, SVO의 두 가지 유형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Lehmann(1973,1978a)과 Vennemann(1974a)은 주어를 제외하고 목적어와 동사의 상대적인 위치로 어순을 규정하였다. Lehmann(1973,1978a)은 어떤 언어에서든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가 다른 성분들의 순서에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제공하기에 목적어와 동사의 상대적 순서를 알면 다른 것들의 결합 순서도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 채완(2004)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에서 특히 동사와 목

7) 이기갑(2008: 301) 참조.

8) 이것은 Cooper&Loss(1972)가 말한 '나 먼저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전형적인 화자를 '나'로 보고 '나'에 가까운 것을 먼저 내세우는 원칙이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적어의 상대적 어순이 언어의 유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목적어가 동사 앞에 놓이는 OV 언어와 동사가 목적어 앞에 놓이는 VO 언어가 언어의 유형적 특징이다.

Greenberg의 언어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여 Lehmann(1978)은 OV와 VO 언어의 성분 순서의 상호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성분 순서의 상호 관련성은 아래 <표 2-2>와 같이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2-2> Lehmann의 성분 순서의 상호 관련성¹⁰⁾

어순		
	OV	VO
상호 관련	명사 + 후치사 소유격 + 명사 형용사 + 명사 관계절 + 명사 문두 이외 의문사 접미사 본동사 + 보조동사 기준 + 비교 형용사 부사 + 동사 동사 + 부정어 절 + 종속 접속사	전치사 + 명사 명사 + 소유격 명사 + 형용사 명사 + 관계절 문두 의문사 접두사 ¹¹⁾ 보조 동사 + 본동사 비교 형용사 + 기준 동사 + 부사 부정어 + 동사 종속 접속사 절

이 둘 중에서 한국어는 (S)OV형에 속하고 베트남어는 (S)VO형에 속한다. 즉, 한국어는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라는 방식

9) Greenberg의 경우 V와 O만을 근거로 한 주장은 드물다. 그는 거의 언제나 S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Lehmann은 상호 관계성에 대한 제언에 S를 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Whaley, 2010:86-95).

10) 김기혁(2010:113)역 참고.

11) 베트남어에서는 파생어가 없어 접사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접두사/접미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으로 세 가지의 문장성분의 배열 순서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성분의 배열 순서로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어는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 + 서술어 + 목적어’라는 방식으로 세 가지의 문장성분의 배열 순서를 가지며 피수식어가 수식어에 선행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2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2.2.1 한국어의 기본 문형

2.2.1.1 한국어의 문장 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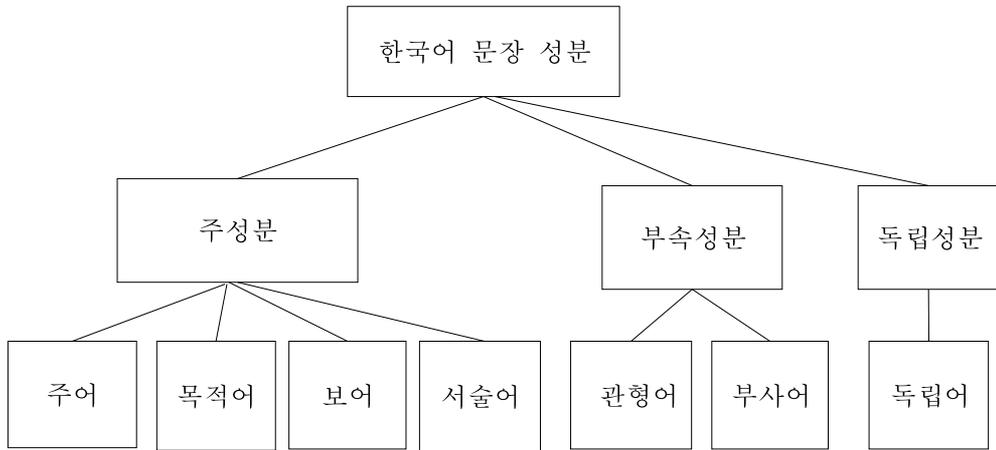
문장의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문장성분 중에서 문장을 이루는 데에 골격이 되는 요소가 주성분이고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요소가 부속 성분이며 두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가 독립 성분이다¹²⁾.

한국어 문장성분은 보통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와 같이 7가지로 분류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므로 주성분이라고 하고 관형어,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것이므로 부속성분이라고 하고 독립어는 독립성분이라고 한다¹³⁾.

한국어 문장 성분은 다음 도형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2) 이희자(2007:17) 참고.

13) 구분관(2015: 29) 참고.



주어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동사의 경우)이거나 상태의 대상(형용사의 경우)을 말한다¹⁴⁾. 주어는 일반적으로 명사구에 ‘이/가’ 등의 주격 조사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서술어는 주어와 함께 문장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한다. 서술어는 서술 대상으로서의 주어를 서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어나 보어 등의 출현 여부를 결정하며 문장의 맨 끝에 놓인다. 서술어 품사에 따라 동사문, 형용사문 그리고 명사문이라고 한다. 서술어는 문장을 이룰 때 주어 하나만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1항 서술어, 또는 주어 이외에 또 다른 한 성분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2항 서술어, 또는 주어를 포함하여 세 성분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3항 서술어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다음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른 예문이다¹⁵⁾.

〈표 2-3〉 한국어의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	예문
1항 서술어	(예쁜)꽃이 (많이) 핀다.

14) 한정환(2015: 144) 참고.

15) 김정숙(2014: 69) 참고.

2항 서술어	<u>철수가 사과를</u> 먹는다. <u>그림이 벽에</u> 걸린다.
3항 서술어	<u>나는 엄마에게</u> 선물을 드렸다. <u>나는 그녀를 가족으로</u> 삼았다.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타동사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한국어의 목적어는 주어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언을 구실을 하는 말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서 이루어지고 타동사인 서술어 앞에 놓인다¹⁶⁾.

보어는 용언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성분으로서, 학교문법에서는 ‘되다’와 ‘아니다’ 바로 앞의 필수 성분을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보어에 붙는 격조사는 따로 없고 주격 조사 ‘이/가’가 보어 표시에도 사용된다¹⁷⁾.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관형어는 관형사가 바로 관형어로 쓰이며 명사구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형 전성 어미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다. 관형어는 수식을 받는 말의 앞에 놓여 쓰인다¹⁸⁾.

부사어¹⁹⁾는 관형어와 같은 수의적 성분의 하나로서 주로 서술어(동사,

16) 남기삼·고영근(2014: 264) 참고.

17) 한국어 보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고등학교문법, 2003:153)

1. (나)와 같은 '명사류 + 조사(-에서', '-로', '-와, 과', '-보다' 등) 형태는 문장의 의미 완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본다.

2. (나)와 같은 '명사류 + 조사' 형태는 형태적으로 부사어의 일종이지만 특이하게도 필수적이므로 필수적 부사어로 보고 보어로 보지 않는다.

3. 학교문법에서 보어는 (가)와 같은 '되다, 아니다' 앞에서 격조사 '이/가'를 동반한 명사류를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어학의 이해, 2015:152,153, 참고)

이 논문에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서 ‘되다’와 ‘아니다’ 앞의 오는 ‘명사구+ 이/가’만을 보어로 보겠다.

18) 한정환(2015: 154) 참고.

19) ‘영회는 아침에 세미나에 참석했다.’

형용사)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부사어는 부사가 바로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를 부사어로 쓰기 위해서 ‘에서, 에, 로’와 같은 부사격 조사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동사나 형용사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후행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게 하는 방법도 있다²⁰⁾.

독립어는 문장 중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성분이다. 즉,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거나 다른 성분을 받는 관계에 없다²¹⁾.

2.2.1.2 한국어의 기본 문형

국립국어원(2005:54-55)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문형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가 서로 어울려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인다. 그리고 어떠한 종결 어미를 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문장 성분들로 구성된 문장들이 다섯 가지의 다른 성질을 지니게 되었다. 즉, 문장 종결법에 의해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이 있다.

다음은 한국어 문장에서 문장성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예문이다.

〈표 2-4〉 한국어의 문형

기본 문형						
그러면	아마	란 씨는	지금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지요?

위에 문장에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한 명사구 '아침에'와 '세미나에'는 문장성분이 부사어가 된다. 그러나 이 두 '에' 명사구가 서술어와 갖는 관련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침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미나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다. 이에 대해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어와 관련성이 적은 '아침에'를 수의적 부사어로, 서술어의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미나에'는 필수적 부사어로 규정하고 있다.

20) 한정환(2015: 156), 참고.

21) 김정숙(2014: 80) 참고.

문장	부사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국립국어원(2005:55)에서는 기본 문형을 다음 <표 2-5>와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2-5> 한국어의 기본 문형

	문형	예문
1	주어 + 서술어	꽃이 <u>핀다</u> .
2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는 엄마와 <u>다르다</u> .
3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u>사랑한다</u> .
4	주어 + 보어 + 서술어	준호는 어른이 <u>되었다</u> .
5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u>여긴다</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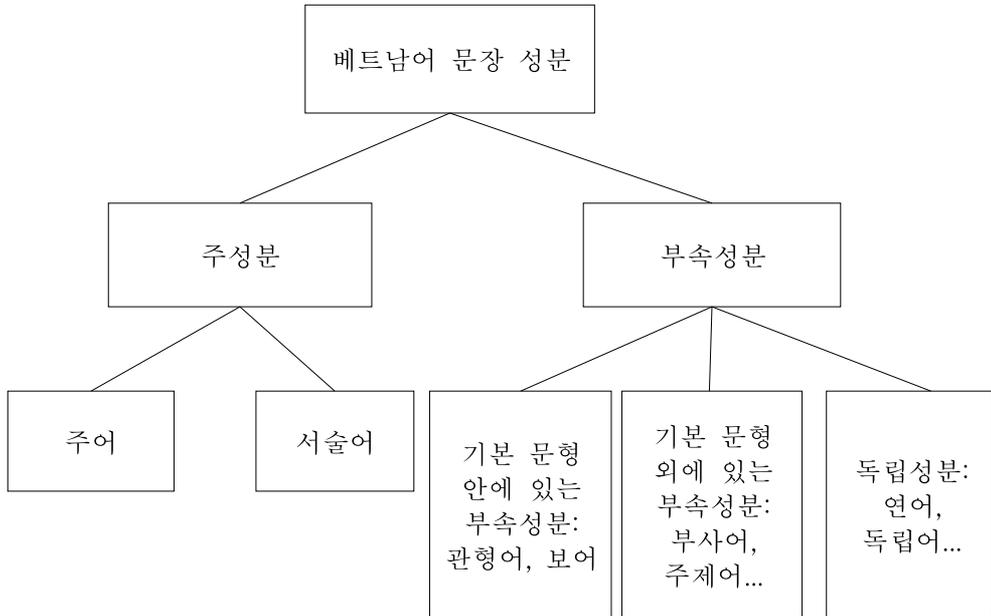
한국어는 SOV 유형에 속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주어 + 서술어'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이거나 상태, 속성의 대상이고 서술어는 주체나 대상을 서술하는 말이다. 서술어는 특성에 따라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더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목적어는 주체 행위의 대상,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부사어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난 시간, 장소, 원인, 행위를 일으키는 재료, 도구, 수단 등을 말한다.

2.2.2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2.2.2.1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

베트남어 학교 문법에서는 주요 문장성분을 주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주제어, 연어, 독립어와 같이 8가지로 분류하는데, '주어-서술어'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문장성분의 종류를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가 주성분이며 보어, 관형어, 부사어, 주제어, 연어, 독립어는 부속성분이다. 부속성분은 다시 기본문형 안에 있는 부속성분(보어, 관형어), 기본문형 외에 있는 부속성분(부사어, 주제어...)과 독립성분(독립어, 연어...)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는 주성분이 모두 필수성분이지만 부속성분 중에는 필수성분과 수의적성분이 있다. 보어가 필수성분이고 관형어, 부사어, 주제어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성분이다. 그리고 독립성분은 독립어 외에 연어가 있다 22).

베트남어 문장성분은 다음 도형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어와 달리, 전통적으로 베트남어 기본 문형은 주어와 서술어로만 들어지는 '주어-서술어'의 어순을 지닌다. 베트남어 주어는 한국어 주어와

22) Le(2010: 29) 참고.

같이 문장에서 사건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고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베트남어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도 주어로 쓰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서술어를 보는 보편적인 방법은 주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서술어로 보는 것이다. 즉, 서술어는 동사와 여러 필요한 보어를²³⁾ 포함한다. 반면 서술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서술어를 동사로만 보고 동사와 동사의 보어를 나눠 분석한다.

다음은 베트남어 기본 문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예문이다.

3) Lan chay.
 란 달리다
 주어 서술어

4) ① Lan đọc sách.
 란 읽다 책
 주어 서술어

② Lan đọc sách.
 란 읽다 책
 주어 서술어 보어

(3)의 경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주어와 서술어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반면 (4)의 경우는 (4-1)문장 ‘Lan đọc sách(란은 책을 읽는다)’은 주어가 ‘Lan(란)’이며 나머지 ‘đọc sách(책을 읽는다)’를 모두 서술어로 본다. 즉, 서술어는 동사 ‘đọc’(읽다)과 동사의 보어 ‘sách’(책)를 포함한다. 그리고 (4-2)에서 좁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장은 동사와 보어로 나누고 주어, 서술어와 보어 세 성분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주어는 ‘Lan’이고 서술어는 동사 ‘đọc’(읽다)만 보고 보어 ‘sách’

23) 베트남어의 보어를 설정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책)는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보편적인 방식은 (4-1)이고 학교 문법에서 적용해 교육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에게 문장의 주제(주어)와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말(서술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에 깊이 분석하기 위해서 동사와 동사의 보어를 나눌 필요가 있다²⁴⁾.

베트남어의 보어는 한국어의 보어와는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어의 보어는 언어학에서 말하면 보충어(complement)와 같은 개념으로 서술어 뒤에 위치하고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속성분이다. 그렇지만 동사의 종류에 따라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불완전성이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보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기에 주어와 불완전성이 있는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의미가 완전하지 않으며 보어를 통해 성립될 수 있다²⁵⁾.

보어는 다음 <표 2-6>과 같이 정대 보어, 대상 보어, 묘사 보어 등으로 나뉜다.

<표2-6> 베트남어 보어의 종류

보어의 종류		예문
정대 보어		Lan <u>rất</u> say mê âm nhạc. 란 매우 열중하다 음악
대상 보어 ²⁶⁾	직접 대상 보어	Lan đọc <u>báo</u> . 란 읽다 신문
	간접 대상 보어	Lan tặng sách cho <u>ban</u> . 란 주다 책 에게 친구 Lan treo tranh lên <u>tường</u> . 란 걸다 그림 에 벽
묘사 보어		Nhà tôi xa <u>trường học</u> . 집 우리 멀다 학교

24) Diep Quang Ban(1997:66) 참고.

25) Diệp Quang Ban(1998: 96) 참고.

베트남어의 관형어는 기본 문형 안에 있는 부속성분이고 한국어와 같은 역할을 지니는데 체언으로 된 주어, 보어를 수식해 주는 말이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꾸미는 체언 앞에서만 쓰이는 한국어의 관형어와 달라 베트남어의 관형어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다²⁷⁾. 다음은 베트남어 관형어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예문이다.

5) 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베: Nó mặc áo gì ?

그 입다 옷 어떤

한: 파란 옷 (O)

베: Áo xanh (O)

옷 파란

한: 파란 (X)

베: Xanh (O)

파란

베트남어의 관형어는 다음 <표 2-7>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어, 모양 관형어, 지시 관형어로 나뉜다.

<표 2-7> 베트남어 관형어의 종류

관형어의 종류	예문
---------	----

26) 대상 보어가 목적어로도 부르는데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나뉜다. 간접 목적어는 보통 관계사가 필요한데 보어 앞에 위치한다.

27) 베트남어에 한국어처럼 관형사라는 품사는 없는데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가 명사의 앞에서 또는 뒤에서 꾸며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그, 저, 의' 의미를 가진 품사는 명사의 뒤에 오며 '모든, 전부, 각, 한, 둘, 여러'의 의미를 가진 것은 명사 앞에 쓰이고 이것은 베트남어 부사의 범주에 든다.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	<u>Hai</u> em bé đang chơi. 두 아이 고 있다 놀다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어	Tôi thích hoa <u>hồng</u> . 나 좋아하다 꽃 장미
모양 관형어	Lan là người <u>tốt</u> . 란 이다 사람 착하다
지시 관형어	Người <u>đó</u> là giáo viên 사람 그 이다 선생님

베트남어의 부사어는 기본 문형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부속성분이다. 문장의 부사어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고 주어의 앞에 위치한다. 단어의 부사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의 옆에 위치한다. 부사는 그대로 부사어로 쓰이거나 체언에 여러 가지 전치사를 붙여 부사어가 된다.

부사어는 다음 <표 2-8>과 같이 시간 부사어, 장소 부사어, 원인 부사어, 목적 부사어, 도구 부사어, 정태 부사어 등으로 나뉜다.

<표 2-8>베트남어 부사어의 종류

부사어의 종류	예문
시간 부사어	<u>Bây giờ</u> Lan... đọc sách. 지금 란 읽다 책
장소 부사어	Lan đọc sách ở <u>thư viện</u> . 란 읽다 책 에서 도서관
원인 부사어	Tôi vất vả <u>về</u> <u>ông</u> . 나 고생하다 때문에 너
목적 부사어	Tôi học tiếng Hàn <u>để</u> <u>du học</u> . 나 배우다 한국어 -기위해 유학
도구 부사어	Tôi đến <u>bằng</u> <u>xe đạp</u> . 나 오다 (으)로 자전거
정태 부사어	<u>Ăn cơm xong</u> , tôi học bài. 먹다 밥 후에 나 공부하다

한국어에서는 주제어(Theme-complement)라는 성분이 없는데 주제어는 베트남어의 특별한 문법적인 기능을 지니는 성분이다. 베트남어 주제어는 문장의 주제를 제기하는 부속성분인데 주어가 아니고 주어의 앞에 나온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목적어나 보어와 비슷하지만 주어의 앞으로 이동한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다. 다음은 주제어의 예문이다.

6) ① 베: Một bài thơ hay ta không bao giờ chỉ đọc một lần.
한 시 재미있다 우리-지 않다 절대 만 읽다 한 번
주제어

한: 재미있는 시는 우리는 절대 한 번만 읽지 않는다.
이동한 목적어

② 베: Giàu, tôi cũng giàu.
부자 나 도 부자이다
주제어

한: 부자, 나도 부자야.
독립어

(6-1)에서 'một bài thơ hay (재미있는 시 하나)'는 주제어이고 문장의 주제는 '재미있는 시'라고 제기한다. 이 경우에는 주제어는 목적어와 비슷하지만 목적어가 아니다. (6-2)에서 'giàu(부자)'는 주제어이고 문장의 주제는 부자라고 제기한다.

베트남의 연어(Conjunct)는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부속 성분인데 보통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 한국어에서는 연어라는 성분이 없는데 베트남어의 연어와 같은 역할을 지니는 성분이 접속 문장 부사어이다. 다음은 연어에 대한 예문이다.

7) 베: Tôi nghe báo cậu ấy sẽ đến. Ấy thế mà, cậu ấy không đến.
 그렇지만
 연어

한: 그가 올 거라고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안 왔다.
 접속 문장 부사어

베트남어 독립어는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속성분인 데 문장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음<표 2-9>와 같이 기능에 따라 기분 표현(Mood Expressions)과 정태 요소, 호격(Vocatives), 괄호(Parenthesis), 감탄 네 가지로 분류한다.

<표 2-9> 베트남어 독립어의 종류

독립어의 종류	예문
기분 표현과 정태 요소	<u>Có lẽ</u> mẹ về 아마 어머니 오다 Mẹ về rồi <u>à</u> 어머니 오다 과거 요 Mẹ về rồi <u>hay sao?</u> 어머니 오다 과거 의문문
호격	- <u>Này, Lan!</u> 야 란 - <u>Gi?</u> 뭐
괄호	Chị gái tôi (<u>30 tuổi</u>) vẫn chưa kết hôn. 언니 나 30살 아직 -지 않다 결혼하다
감탄	<u>Ôi!</u> 어머

--	--

2.2.2.2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 기본 문형은 주어와 서술어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어에서는 용언이 활용하지 않고 종결법도 없는데 의문 대명사와 독립어(기본 표현과 정태 요소, 감탄)와 결합하면서 문장 유형을 결정한다. 문장 유형에 따라 어순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베트남어 문장에서 문장성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예문이다.

〈표 2-10〉베트남어의 문형

부속성분			기본 문형 (주성분)				부속성분	
Thế thì	có lẽ	bây giờ	Lan	đọc	sách	(hay) ²⁸⁾	ở nhà	nhi?
그러면	아마	지금	란	읽다	책	재미있는 관형어	에서 집	-지?
언어	독립어	부사어	주어	동사	보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				

베트남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주어-서술어'순의 기본 문형이다.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 동사가 올 수 있으며 동사의 경우 'là'동사와 'là' 이외의 동사로 나뉜다²⁹⁾.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은 다음 〈표 2-11〉과 같다.

28) 관형어는 없어도 된다.

29) 베트남어에서는 계사'là'는 특별한 동사로도 삼고 명사인 보어를 필요하다.

〈표 2-11〉 베트남의 기본 문형

기본 문형		예문
주어 + 서술어	'là' 동사 ³⁰⁾	<p>Tôi <u>là</u> <u>học sinh</u>.</p> <p>나 이다 학생 주어 동사 묘사 보어</p> <p>Tôi <u>không phải là</u> <u>người Hà Nội</u>³¹⁾.</p> <p>나 아니다 이다 사람 하노이 주어 동사 묘사보어</p>
	'là' 동사 외에	<p>Mẹ <u>về</u>.</p> <p>어머니 오다 주어 동사</p> <p>Hoa <u>đẹp</u>.</p> <p>꽃 예쁘다 주어 형용사</p> <p>Tôi <u>ăn</u> <u>cơm</u>.</p> <p>나 먹다 밥 주어 동사 직접 대상보어</p> <p>Tôi <u>ngồi</u> <u>vào ghế</u>.</p> <p>나 앉다 에 의자 주어 동사 간접 대상보어</p> <p>Nam <u>đã</u> <u>trở thành</u> <u>người lớn</u>.</p> <p>남 과거 되다 성인 주어 동사 묘사 보어</p> <p>Tôi <u>đưa</u> <u>sách</u> <u>cho</u> <u>Nam</u>.</p> <p>나 주다 책 에게 남 주어 동사 직접 대상보어 간접 대상보어</p>

30) '주어 + là(이다) + 명사' 외에 '주어+là(이다)+ 형용사'문형도 있는데 꼭 계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없어도 상관없다.

31) 베트남어에서는 'không phải'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다'의 뜻을 가진 'là' 앞에 사용하여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다' 와 '아니다'를 '주어+ 이다+ 서술어' 문형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어는 SVO 유형에 속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 문형은 ' 주어-서술어'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이거나 상태, 속성의 대상이고 서술어는 주체나 대상을 서술하는 말이다. 서술어는 특성에 따라 보어를 더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은 동사에 종류에 따라 'là' 동사가 있는 문장과 'là' 동사가 없는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2.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대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을 대조해보니 양 언어의 문장성분은 같은 용어이지만 범위가 다르거나 같은 역할이지만 용어만 다르다. 베트남어의 독립어는 한국어의 독립어보다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한국어의 보어에 비해 베트남어의 보어의 범위가 넓는데 한국어는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포함하지만 베트남어의 부사어의 범위는 한국어 부사어에 비해 좁은데 필수적 부사어라는 성분이 없다. 양 언어는 문장 부사어를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다. 한국어의 문장 부사어는 베트남어에서는 연어(접속 문장 부사어)와 정태 독립어의 일부³²⁾(양태 문장 부사어)이다. 베트남어의 문장 부사어는 한국어에서는 성분 부사어(시간 부사어)인데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2>와 같다.

<표 2-12>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 성분의 용어 대조

한국어의 문장 성분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
주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
목적어	직접 대상 보어 (직접 목적어)

32) 아마, 혹시, 설마 등 같은 문장의 앞에 위치하는 정태 독립어를 말한다.

보어			묘사 보어 ('되다/아니다'의 뒤에 나오는 명사류)
필수적 부사어			간접 대상 보어(간접 목적어)
부사어	문장 부사어	접속	연어
		양태	정태 독립어
	성분 부사어		부사어, 정태 보어, 묘사 보어('되다, 아니다'의 뒤에 나오는 명사류 외에)
관형어			관형어
독립어			독립어

베트남어는 한국어보다는 영어와 비슷한 문장구조 형태를 가지고 문장 성분에 대한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대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문형을 대조하기 위해서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을 한국어에 맞추어서 재정리하기로 한다.

2.2.2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주어, 관형어 외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성분은 같은 명칭이지만 범위가 다르거나 같은 역할을 하지만 명칭만 다르다. 우선, 한국어와 달라 베트남어에서는 서술어를 보편적으로 보는 방식은 주어 외에 나머지 모두를 서술어로 보는 것인데 한국어와 대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베트남어 서술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기로 한다. 즉, 한국어처럼 서술어를 동사만 보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베트남어에서 한국어의 목적어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은 직접 대상 보어인데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목적어로 부르기로 한다. 셋째, 베트남어의 보어는 한국어의 보어와 명칭이 같지만 범위가 한국어의 보어보다 훨씬 넓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보어의 범위에 따라 '아니다/되다' 뒤에 나오는 명사류³³⁾만 보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넷째, 베트남어의 부사어는 한국어의 부사어와 명칭은 같지만 한국어의 부사어보다 범위가 좁다. 한국어의 부사어의 역할과 대조하면 한국어의 부사어는 베

33) 한국어에서는 '아니다/되다' 앞에 나오는 '명사류 + 이/가'를 보어로 보는데 베트남어에서는 격 조사 없어서 '아니다/되다' 뒤에 명사류만 나오고 묘사 보어에 속한다.

트남어의 부사어, 정태보어, 묘사 보어를³⁴⁾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본고에서는 비교 논의를 위해서 베트남어의 부사어를 한국어의 부사어 범주로 보기로 한다. 즉, 정태 보어, 묘사 보어까지 부사어로 본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비교·대조·논의를 위해서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을 한국어의 성분 명칭에 맞추어 선정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2-13>과 같다.

<표 2-13>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은 한국어와 동일한 문장 성분 명칭이 있을 경우³⁵⁾

기본 문형		예문
주어 + 서술어	'là' 동사 ³⁶⁾	<p>Tôi <u>là</u> <u>học sinh</u>.</p> <p>나 이다 학생</p> <p>주어 + 서술어(명사+이다)</p> <p>Tôi <u>không phải là</u> <u>người Hà Nội</u>³⁷⁾.</p> <p>나 아니다 이다 사람 하노이</p> <p>주어 + 서술어(아니다) + 보어</p>
	'là' 동사 외에	<p>Mẹ <u>về</u>.</p> <p>어머니 오다</p> <p>주어 + 서술어(동사)</p> <p>Hoa <u>đẹp</u>.</p> <p>꽃 예쁘다</p> <p>주어 + 서술어(형용사)</p> <p>Tôi <u>ăn</u> <u>cơm</u>.</p> <p>나 먹다 밥</p> <p>주어 + 서술어 + 목적어</p> <p>Tôi <u>ngồi</u> <u>vào ghế</u>.</p> <p>나 앉다 에 의자</p> <p>주어 + 서술어 + 부사어</p>

34) '아니다/되다' 앞에 나오는 명사류를 뺀다.

35) <표 2-10>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Nam <u>đã</u> <u>trở thành</u> <u>người lớn</u> . 남 <u>과거</u> <u>되다</u> <u>성인</u> 주어 + 서술어(되다) + 보어
		Tôi <u>đưa</u> <u>sách</u> <u>cho</u> <u>Nam</u> . 나 <u>주다</u> <u>책</u> <u>에게</u> <u>남</u>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부사어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은 한국어와 동일한 문장 성분 명칭을 사용한다면 한국어 기본 문형과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주어-서술어'의 문형이고 서술어 특성에 따라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더 필요로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뒤에 나온다.

2.3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

2.3.1 기본 어순 차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세 가지 주요 성분의 어순을 기본어순이라고 하지만 서술어는 특성에 따라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더 필요로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다. 서술어는 서술 대상인 주어를 서술하고 목적어나 보어 등의 출현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서술어는 문장의 핵이고 문장의 틀을 결정한다.

36) '주어 + là(이다) + 명사' 외에 '주어+là(이다)+ 형용사'문형도 있는데 예는 꼭 계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없어도 상관없다.

37) 베트남어에서는 'không phải'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다'의 뜻을 가진 'là' 앞에 사용하여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다' 와 '아니다'를 '주어+ 이다+ 서술어' 문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목적어가 없는 기본 문형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은 똑같다. 주어는 문두에, 서술어는 문미에 위치한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나 명사가 된다. 한국어에서 명사가 서술어가 되려면 명사 뒤에 '이다'를 덧붙여야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조사라 부른다.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이 '이다'를 대체로 계사로써 'là'가 있고 명사가 서술어가 되려면 명사 앞에 'là'를 덧붙여야 한다. (8)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주어-서술어 기본 문형의 예문이다.

8) ① 한: 꽃이 핀다.

베: Hoa ở.

꽃 피다

② 한: 꽃이 예쁘다.

베: Hoa đẹp.

꽃 예쁘다.

③ 한: 철수가 학생이다.

베: Cholsu là học sinh.

철수 이다 학생

위의 예문 (8-1)에서 서술어는 자동사이고 (8-2)에서 서술어는 형용사인데 두 언어의 어순이 서로 같다. (8-3) 예문에서는 명사가 서술어가 되었고 한국어 명사 '학생'뒤에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나오는 반면에 베트남어 명사 'học sinh' 앞에는 계사 'là'가 나온다.

둘째, 목적어가 있는 기본 문형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일반적으로 SOV(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형이고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SVO(주어+서술어+목적어)형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의 공통점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이고 차이점은 서술어와 목적어의 위치인데 한국어의 서술어는 문장의 끝

에 오고 베트남어의 서술어는 주어의 뒤에 온다. (9)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의 예문이다.

- 9) 한: 린이 김치를 좋아한다. (한국어: S-O-V)
베: Linh thích kim chi. (베트남어: S-V-O)
린 좋아하다 김치

(9)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주어 린(Linh)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한국어 서술어 '좋아하다'는 문장의 맨 끝에 놓이지만 베트남어의 'thích'는 주어 뒤에 온다.

셋째, 문장에서 목적어 위치에는 필수적 부사어나 보어가 들어갈 수 있다. 보어가 들어가면 한국어 문장은 '주어 + 보어 + 서술어'의 어순이 되고 베트남어 문장은 '주어 + 서술어 + 보어'의 어순이 된다. 부사어가 들어가면 한국어 문장은 '주어 + 부사어 + 서술어'의 어순이 되고 베트남어 문장은 '주어 + 서술어 + 부사어'의 어순이 된다. 다음은 이런 경우에 대한 예문이다.

- 10) ① 한: 철수가 버스로 온다.
베: Cholsu đến bằng xe buýt.
철수 오다 (으)로 버스

- ② 한: 철수는 의사가 되었다.
베: Cholsu đã trở thành bác sĩ.
철수 (과거) 되다 의사

(10-1)에서 한국어 문장은 '철수가(주어) + 버스로(부사어) + 온다(서술어)'의 어순이고 반면에 베트남어 문장은 'Cholsu(주어) + đến(서술어) + bằng xe buýt(부사어)'의 어순이다. 한국어의 필수적 부사어 '버스(명사) + 로(조사)'는 서술어 '오다'의 수단을 말하고 베트남어의 필수적

부사어 'băng(전치사) + xe buýt(명사)'는 서술어 'đến'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드러내준다. (10-2)에서 한국어 문장은 '철수는(주어) + 의사가(보어) + 되었다(서술어)'의 어순이고 베트남어 문장은 'Cholsu(주어) + đã trở thành(서술어) + bác sĩ(보어)'의 어순이다. 한국어 보어 '의사(명사) + 가(조사)'는 주어 '철수'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고 베트남어 보어 'bác sĩ'는 서술어 'đã trở thành'를 꾸며 주는 말이다.

넷째,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주성분 외에 필수적 부사어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부사어에 따라 한국어 문장은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어순이나 혹은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의 어순으로 배열되는데 베트남어 문장은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부사어'의 어순만으로 배열된다. (11)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① 한: 철수가 준호에게 책을 주었다.

베: Cholsu đưa sách cho Chunho.
철수 주다 책 에게 준호

② 한: 철수가 준호를 친구로 삼았다.

베: Cholsu xem Chunho là bạn bè.
철수 삼다 준호 로 친구

(11-1)에서 한국어 문장은 '철수가(주어) + 준호에게(부사어) + 책을(목적어) + 주었다(서술어)'의 어순인데 베트남어 문장은 'Cholsu(주어) + đưa(서술어) + sách(목적어) + cho Chunho(부사어)'의 어순이다. (11-2)예문에서 한국어 문장은 '철수가(주어) + 준호를(목적어) + 친구로(부사어) + 삼았다(부사어)'의 어순으로 배열되는데 베트남어 문장은 'Cholsu(주어) + xem(서술어) + Chunho(목적어) + là bạn(부사어)'의 어순이 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 문장성분의 순서 및 서술어의 위치를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한국어와 베트남어 기본 문장 성분의 어순

한국어 어순 유형			베트남어 어순 유형		
가. 주어	+ 서술어	= {동사/형용사}	가. 주어	+ 서술어	= {동사/형용사}
		= {명사 + 이다}			= {là(이다) + 명사}
나.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나.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다. 주어 + 보어 + 서술어			다. 주어 + 서술어 + 보어		
라.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라. 주어 + 서술어 + 부사어		
마.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마.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부사어		
바.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부사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모두 주어는 문두에 위치한다. '주어-서술어' 문장 구조는 한국어나 베트남어나 SV로 동일한 어순을 지니며 서술어 자리에 동사 이외에도 '형용사', '명사 + 이다'가 위치할 수 있는데 '명사+이다'의 경우에는 베트남어에서는 '이다+명사'의 어순이 배열된다. 나머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인다. 반면에 베트남어는 서술어는 주어 뒤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뒤에 놓인다.

2.3.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차이

부속성분이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과 같은 주성분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성분이 문장 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통 문장은 성립된다. 이러한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속하는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며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우선, 관형어란 체언으로 된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말을 이르는 것이다³⁸⁾. 문장에서 '어떤' 혹은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관형어가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차이이다. 한국어의 관형어는 수식을 받는 말의 앞에 놓여 쓰이는데 베트남어의 관형어는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 베트남어 수 관형어의 경우에는 한국어 관형어와 같이 수식을 받는 말의 앞에 놓여 쓰이는 반면에 상태나 성상 관형어와 지시 관형어가 수식을 받는 말의 뒤에 놓여 쓰인다. 다음은 관형어가 주성분을 수식해주는 예문이다.

12) ① 한: 두 손님이 왔다.

베: Hai khách đã đến.
두 손님 과거 오다

② 한: 저쪽은 두 명이 아니다.

베: Đó không phải là hai người.
저쪽 아니다 이다 두 명

③ 한: 교사는 두 답안지를 대조했다.

베: Giáo viên so sánh hai tờ đáp án.
교사 대조하다 두 답안지

13) ① 한: 예쁜 아이가 왔다.

베: Em bé xinh đẹp đã đến.
아기 예쁘다 과거 오다

38) 고영근·남기심(1993: 265)에서 인용.

② 한: 철수는 동생의 선생님이 아니다.

베: Choilsu không phải là giáo viên của em trai.

철수 아니다 이다 선생님 의(소유) 동생

③ 한: 나는 그 치마를 입었다.

베: Tôi đã mặc váy đó.

나 과거 입다 치마 그

(12)에서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의 경우인데 한국어 관형어와 역할과 위치가 똑같다. (13)예문에서는 성상 관형어와 지시 관형어의 경우이다. (13-1) '예쁜 (xinh đẹp)'은 주어 '아기(em bé)'를 꾸며주는데 한국어에서는 관형어 '예쁜'은 주어 '아이'의 앞에 위치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관형어 'xinh đẹp'은 주어 'em bé'의 뒤에 위치한다. (13-2)예문에서 관형어 '동생의 (của em trai)'는 보어 '선생님(giáo viên)'을 수식해준다. 한국어 경우에는 관형어 '동생의'는 보어 '선생님' 앞에 나오는 반면에 베트남어 경우에는 관형어 'của em trai'는 보어 'giáo viên' 뒤에 나온다. (13-3)에서 관형어 '그 (đó)'는 목적어 '치마(váy)'를 수식해준다. 한국어 관형어 '그'는 목적어 '치마'의 앞에 위치하는데 베트남어 관형어 'đó'는 목적어 'váy'의 뒤에 위치한다.

다음으로 부사어는 주로 용언인 서술어를 꾸며주는 수의적 요소로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크게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뉜다.

문장 부사어의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똑같은데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이고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어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어로 나뉜다. 다음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① 한: 확실히 나는 이야기를 했다.

베: Rõ ràng tôi nói rồi.

확실히 나 이야기하다 과거

② 한: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베: Anh ấy thích bóng đá. Nhưng không thích bóng rổ.
그 좋아하다 축구 그런데 -지 않다 좋아하다 농구

성분 부사어는 관형어와 같은 수의적 성분의 하나로 서술어에 덧붙여서 그 뜻을 한정하여 주는 말이다³⁹⁾. 문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부사어는 수식받는 말의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현효과를 위해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반면에 베트남어에서는 부사어의 위치도 베트남어 관형어와 같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간 부사어는 문장의 앞에 위치하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앞에 나온다. 빈도·정도·생태 부사어는 수식받는 말의 앞에 나오고 나머지 보통 수식받는 말의 뒤에 나오는데 한국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위해 베트남어 부사어의 어순 배열도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부사어보다는 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부사어는 주성분을 수식해주는 예문이다.

15) 한: 나는 오늘 산책했다.

베: Hôm nay, tôi đã đi dạo.
오늘 나 과거 산책하다

16) ① 한: 나는 자주 논다.

베: Tôi thường xuyên chơi .
나 자주 놀다

② 한: 한국 음식이 매우 맵다.

베: Đồ ăn Hàn Quốc rất cay.
음식 한국 매우 맵다

39) 남기삼·고영근(2010: 296) 인용.

17) ① 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베: Tôi sẽ sống hạnh phúc.

나 -겠 살다 행복하다

② 한: 나는 집에서 책을 읽는다.

베: Tôi đọc sách ở nhà.

나 읽다 책 에서 집

(15)는 시간 부사어 '오늘(hôm nay)'은 서술어 '산책하다(đi dạo)'를 수식해 주는데 한국어 경우에는 서술어 '산책하다'의 앞에 나오지만 베트남어 경우에는 'hôm nay'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온다. (16)의 빈도·정도 부사어 경우 베트남어 부사어는 한국어 부사어와 똑같다. (16-1)에서는 빈도 부사어 'thường xuyên(자주)'는 서술어 'chơi (논다)'의 앞에 나오고 꾸며 준다. (16-2)에서 정도 부사어 '매우(rất)'은 서술어 '맵다(cay)'의 앞에 나오고 꾸며 준다. 반면에 (17)의 빈도·정도 부사어 외에 부사어 경우에는 차이가 보인다. (17-1)에서는 '행복하게(hạnh phúc)'는 서술어 '살다(sống)'를 수식해 주는데 한국어의 경우 '행복하게'는 '살다'의 앞에 나오는 반면 베트남어의 경우 'hạnh phúc'는 'sống'의 뒤에 나온다. (17-2)에서는 '집에서(ở nhà)'는 서술어 '읽다(đọc)'를 수식해 준다. 한국어 부사어 '집에서'는 서술어 '읽다'의 앞에 나오지만 베트남어 부사어 'ở nhà'은 서술어 'đọc'의 뒤에 나온다.

베트남어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을 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한국어와 베트남어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한국어 어순	베트남어 어순	
관형어	관형어 + {주어/목적어/보어}	수 관형어 +	관형어-주어-서술어
		{주어/ 목적어/	주어-서술어-관형어-보어

		보어}	주어-서술어-관형어-목적어
	관형어-주어-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 {성상관형어/ 지시 관형어}	주어-관형어-서술어
	주어-관형어-보어- 서술어		주어-서술어-보어-관형어
	주어-관형어-목적어- 서술어		주어-서술어-목적어-관형어
부 사 어	부사어+ 서술어	시간 부사어 + 문장	시간 부사어-주어-서술어
		{빈도·정도 부 사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 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목적어
	주어-부사어-목적어- 서술어	서술어 +	주어-서술어-부사어
	주어-목적어-부사어- 서술어	{빈도·정도 부 사어 외에}	주어-서술어-목적어-부사어

비교적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위치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관형어와 부사어는 보통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하는 반면에 베트남어 관형어와 부사어는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 시간 부사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수관형어와 빈도·정도 부사어는 한국어와 같이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하고 나머지 다른 관형어와 다른 부사어는 수식받는 말의 뒤에 나온다.

2.3.3 부속성분 간의 어순 차이

부속성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성분들이 없더라도 문장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부속성분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좀 더 화려해지며 풍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언어 간의 부속성분을 살펴보고 차이를 대조하고 관형어 간의 어순과 부사어 간의 어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관형어는 여럿이 겹쳐 쓰는 경우에 한국어에서 지시 관형어가 가장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 그 다음에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어가 쓰인다⁴⁰⁾. 한국어와 달라 베트남어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어가 가장 먼저, 다음에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어, 그 다음에 지시 관형어가 쓰인다. 다음은 관형어 간의 어순에 대한 예문이다.

18) 한: 저 두 새 큰 집은 우리 집이다.

베: Hai ngôi nhà to, mới đãng kia là nhà chúng tôi.
두 집 크다 새 저 이다 집 우리

(18)에서 한국어의 관형어 순서는 지시 관형어 '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수 관형어 '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상 관형어 '큰', '새'가 나온다. 베트남어 관형어의 순서는 수 관형어 'ha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상 관형어 'to', 'mới'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시 관형어 'đã ng kia'가 나온다.

문장 부사어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똑같은데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같이 나오면 접속 부사어는 양태 부사어의 앞에 위치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 한: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된다.

베: Vi thế nên nhất định phải tham gia.
그래서 꼭 -아/어야 되다 참석하다

성분 부사어의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공통점에 비해 차이점이 많이 보인다. 우선, 시간 부사어가 빈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와 함께 결합하는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똑같은 '시간 부사어-빈도 부사어-장소

40) 남기삼·고영근(2014:277) 참고.

부사어'의 어순으로 배열된다. 다음 (2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 한: 나는 금요일에 보통 집에서 공부한다.

베: Thứ sáu, tôi thường học bài ở nhà.
금요일 나 보통 공부하다 에서 집

그러나 시간 부사어가 빈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와 함께 결합하는 경우 외에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 '시간 부사어 + 회수 부사어 + 장소 부사어'의 순서를 따른다며 베트남어에서 '시간 부사어 + 장소 부사어 + 회수 부사어'의 어순이다. 다음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한: 나는 오늘 두 번 학교에 갔다.

베: Hôm nay tôi lên trường hai lần.
오늘 나 가다 학교 두 번

원인 부사어가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 함께 출현하게 될 경우, 한국어는 '시간부사 + 원인 부사어 + 장소 부사어'의 어순을 취하나 베트남어는 '시간 부사어 + 장소 부사어 + 원인 부사어'의 어순을 취하게 된다. 다음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한: 나는 1시에 친구 생일 때문에 친구 집에 가야한다.

베: 1 giờ tôi phải đến nhà bạn sinh nhật cô ấy.
1시 나 -아/어야 가다 집 친구 생일 그녀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가 더불어 동반하는 부사어 중 또 다른 하나 도구 부사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 도구 부사어 + 장소 부사어'의 순을 따른다면 베트남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 장소 부사어 + 도구 부사어'의 순을 따른다. 다음 (23)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한: 나는 7시에 버스로 학교에 간다.

베: Bảy giờ, tôi đến trường bằng xe buýt.

7시 나 가다 학교 (으)로 버스

마지막으로 상태 부사어가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 장소 부사어 + 상태 부사어'의 순이나 베트남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 상태 부사어 + 장소 부사어'의 순이다. 다음은 예문이다.

24) 한: 나는 어제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베: Hôm qua, tôi đã học hành chăm chỉ ở nhà.

어제 나 과거 공부하다 열심히 집에서

위의 예문을 통해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속성분 간의 어순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6>과 같다.

<표 2-16> 한국어와 베트남어 부속성분 간의 어순

부속성분	한국어	베트남어
관형어	지시- 수 - {모양/상태/성질}	수- {모양/상태/성질} - 지시
부사어	접속-양태	접속-양태
	시간 - 빈도 - 장소	시간 - 빈도 - 장소
	시간 - 회수 - 장소	시간 - 장소 - 회수
	시간 - 원인 - 장소	시간 - 장소 - 원인
	시간 - 도구 - 장소	시간 - 장소 - 도구
	시간 - 장소 - 상태	시간 - 상태 - 장소

관형어는 여럿이 겹쳐 쓸 때 한국어에서는 '지시-수-성상'의 어순에 따라 쓰인다. 한국어와 완전히 달리 베트남어에서는 '수-성상-지시'의 어순에 따라 쓰인다. 부사어는 여럿 겹쳐 쓰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는 항상 먼저 쓰이고 장소 부사어는 상태 부사어 앞에만 나오고 항상 다른 부사어(회수, 원인, 도구) 뒤에 나온다. 베트남어에서는 시간 부사어도 항상 제일 먼저 쓰이고 시간 부사어 뒤에 바로 장소 부사어가 나온 다음에 회수, 원인, 도구와 같은 다른 부사어가 온다. 그리고 상태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같이 쓰면 양태 부사어 먼저 쓰인 다음에 장소 부사어가 쓰인다.

2.3.4 어순의 변화 가능성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가 있으며 어순이 자유롭지 못한 언어가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모두 정상적인 어순을 가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장 성분들이 문장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도치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보다 베트남어에서 어순의 변화 현상이 적은 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하나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술어와 하나 이상의 주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술어의 위치는 대개 고정되어 있다. 한국어의 서술어는 보통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고 베트남어의 서술어는 주어의 뒤에 위치한다.

한국어에는 주어에 주격조사 '이/가'가 붙고 목적어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자유롭게 이동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화자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화용론적 의미가 다를 뿐이다⁴¹⁾. 그렇지만 베트남어에는 격조사가 없고 고립어로서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으로 문장의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위치가 이동하면 비문이 되거나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

(25-1)은 한국어 기본어순으로 만들어진 문장에 끝에 오고 사건을 단순하게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서술한 문장이다. (25-2)~(25-6)은 서술어가 본래 위치를 벗어난 경우들이다. 이때 (25-2)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25-3)~(25-6)과 같은 문장은 동사가 문장 끝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정문인지 비문인지 논란이 된다. 그러나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와 목적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기본어순이 아니라도 전달하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서술한다. 이런 문장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의 발화이다.

- | | |
|-------------------|---------|
| 25) ① 나는 너를 좋아한다. | (S-O-V) |
| ② 너를 나는 좋아한다. | (O-S-V) |
| ③ 나는 좋아한다 너를. | (S-V-O) |
| ④ 너를 좋아한다 나는. | (O-V-S) |
| ⑤ 좋아한다 나는 너를. | (V-S-O) |

41) 문경애(1993: 7), 소창(2015) 참고.

⑥ 좋아한다 너를 나는. (V-O-S)

(25)의 한국어 문장들을 베트남어 문장과 대조해 보면 (26)과 같다.

- 26) ① Tôi thích cậu. (S-V-O)
나 좋아하다 너
- ② *Cậu tôi thích. (O-S-V)⁴²⁾
너 나 좋아하다
- ③ Cậu thích tôi. (O-V-S)
너 좋아하다 나 (= 너는 나를 좋아한다.)
- ④ *Tôi cậu thích. (S-O-V)
나 너 좋아하다
- ⑤ *Thích tôi cậu. (V-S-O)
좋아하다 나 너
- ⑥ *Thích cậu tôi. (V-O-S)
좋아하다 너 나

(26-1)은 베트남어의 기본어순으로 만들어진 문장 '나는 너를 좋아하는다.'이며 (26-2)~(26-6)은 서술어가 기본어순을 벗어난 경우들이다. (26-3)은 어순이 변화한 후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나머지는 비문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성분위치를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반면에 베트남어에서는 성분들의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순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분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제약이 있다. (27)의 예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27) ① 내가 영희가 좋다.

42) '*'로 비문 표시.

② *영이가 내가 좋다.⁴³⁾

혜정(2012)에 따르면 (27)의 경우에는 같은 격 표시는 '가'이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면 안 된다. 만약, '내가'의 '가'대신 '는'으로 바꾸어서 위치가 바뀌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중주어문에서 대주어와 소주어의 자리 바뀔에 대한 제약을 가진다. (28)의 예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28) ① 철수가 손이 크다.

② * 손이 철수가 크다.⁴⁴⁾

(28)경우에는 철수의 손이 크다는 의미로서 ①과 ② 사이에 개념적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사이의 어순 차이로 인해 문맥적 의미 차이를 발견된다.

또한, 한국어는 격조사가 없으면 순서대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이라고 본다. 위치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도 달라진다. (29)는 한국어 격조사 없는 예문이다.

29) ① 나 너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② 너 나 좋아한다. (너는 나를 좋아한다.)

(29-1)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서술한 문장인데 (29-2)에서는 '나'와 '너'의 위치를 바꾼 후에 '너'는 '나'를 좋아한다고 서술하는 문장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격조사 없으면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같은데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이고 베트남어

43) 혜정(2012:29) 인용.

44) 혜정(2012:29) 인용.

남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주어는 문두에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인다. 반면에 베트남어는 서술어는 주어 뒤에 위치하며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뒤에 놓인다.

둘째, 비교적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위치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관형어와 부사어는 보통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하는 반면에 베트남어 관형어와 부사어는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 시간 부사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수관형어와 빈도·정도 부사어는 한국어와 같이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하고 나머지 다른 관형어와 다른 부사어는 수식받는 말의 뒤에 나온다.

셋째, 관형어는 여럿이 겹쳐 쓸 때 한국어에서는 '지시-수-성상'의 어순에 따라 쓰인다. 한국어와 완전히 달리 베트남어에서는 '수-성상-지시'의 어순에 따라 쓰인다. 부사어는 여럿 겹쳐 쓰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는 항상 먼저 쓰이고 장소 부사어는 상태 부사어 앞에만 나오고 항상 다른 부사어(회수, 원인, 도구) 뒤에 나온다. 베트남어에서는 시간 부사어도 항상 제일 먼저 쓰이고 시간 부사어 뒤에 바로 장소 부사어가 나온 다음에 회수, 원인, 도구와 같은 다른 부사어가 온다. 그리고 상태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같이 쓰면 양태 부사어 먼저 쓰인 다음에 장소 부사어가 쓰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기 때문에 문장성분의 위치를 이동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베트남어에서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이동하면 비문이 되거나 의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지만 격조사가 없으면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같이 어순이 바뀌면 문장의 의미도 달라진다.

III.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 분석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떤 어순상의 특성을 지니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작문을 수집하여 어순이 자연스럽게 않은 문장을 찾은 후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을 분류·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특성이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도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논의는 어순상의 오류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베트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지니는 어순상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3.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3.1.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대학교의 한국어학당이 많지만 베트남인만 모인 강의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국적 학습자들이 모인 강의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떤 어순 오류를 자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어순상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데 있기에 한국 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어순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 특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베트남인 초급 과정인 2급 학습자의 글쓰기 과제를 연구 자료

로 정하였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학원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종합 한국어’라는 교재에 따라 한국어를 배운다. 학습자들은 보통 일주일 중의 삼 일에 두 시간을 배우기에 초급 과정인 2급까지 학습하려면 6개월이 걸린다. 초급 과정인 2급을 수료하면 학습자들은 초급 문법 항목 104개, 초급 어휘 1000개를 알 수 있고 자기소개, 인사, 음식, 생활, 교통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에 따른 글쓰기는 10개 정도 경험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는 7,210만 명으로 인구의 73.2%가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이용자 통계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7천7백만 명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의 97%로 나타나 전 세계 7위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많은 국가이다⁴⁵⁾. 페이스북에서는 온라인 학습자 집단이 많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그룹에 연구자가 교사 역할로 가입하여 초급 글쓰기 과제를 수정 받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수는 총 50개인데 이 중 40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종합 한국어’라는 교재의 쓰기 과제이고 나머지 10개는 수업 도중에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 제시한 번역하기 과제이다. 쓰기 과제의 주제는 하루 일, 여행 이야기,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러한 쓰기 과제와 번역하기 과제는 모두 집에서 하는 숙제이고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수집한 자료를 작문 과제와 번역하기 과제로 구성한 것은 두 방식의 과제가 지닌 장단점을 고려한 것이다. 작문 자료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문법 항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번역하기 과제에서는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 교사가 제시한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잘 할 수 있는 문법과 잘 할 수 없는 문

45)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2-october-global-statshot>] 참고.

법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와 번역하기 과제를 동시에 수집해서 어순 오류를 찾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보이는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장 중에는 조사와 연어 사용의 오류, 제한된 어휘와 문법 지식으로 인한 형태적인 오류들도 같이 나타나기에 어순의 차이로 인한 오류 문장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장에서 어순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만 주목하였다.

수집한 문장 중에는 오류로 보기보다는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적합한 문장도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베트남어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장도 많이 있었다. 효율적인 어순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떤 어순 오류를 자주 발생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떤 어순상의 특징을 지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순상의 오류에만 주목하지 않고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이는 한국어 어순의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순 오류 문장, 어순이 어색한 문장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베트남어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장을 함께 수집하였다.

글쓰기 과제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생각할 시간, 다시 확인하고 고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 과제를 통해서만 학습자의 어순 특성을 분석한다면 학습자들의 특성을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징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두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였다.

구두 인터뷰는 수집한 글쓰기 자료와 같은 단계에 있는, 초급 과정인 2급 베트남인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글쓰기 과제에서 찾은 어순 오류를 보이는 문장 중에 베트남인 학습자의 어순상의 특성이 잘 보이는 문장을 15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문장은 기본 어순 오류 문장 2개, 관형어 수식에 관한 어순 오류 문장 3개, 부사어 수식에 관한 오류 문장 7개 그리고 부사어 간의 어순 오류 문장 3개로 구성된다.

그 후 선정한 문장들을 교사가 베트남어로 말한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순의 특성이 실제 구두 발화에서도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았다. 단, 이런 방식도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니고 교사가 제시한 문장을 번역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글쓰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1.2 어순 오류 판정 및 분석틀

본 논문에서는 연구 자료로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 40명의 글쓰기 과제 50편을 수집하고 여기에서 102 개의 문장을 선정하였다. 글쓰기 한 편은 보통 10~2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기에 50편이면 500개가 넘는 문장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은 단문을 중심으로 글을 쓰기에 이런 단문에서는 어순 문제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수집한 자료에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영어를 공부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는 “베트남 식당에서 먹었어요. 맛있어요.”와 같은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너무 어려워요”와 “맛있어요”의 경우에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 때문에 어순 문제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어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쓰기 과제 50 편중에 어순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장 102 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자료에서 먼저 어순이 이상하거나 틀린 문장을 찾아서 여기서 나타나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즉, 그 특징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상의 차이로 인한 특징으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오류가 아닌 문장에서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지만 베트남어의 어순상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장을 함께 고찰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순'이라는

범주를 학습자 오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 연구의 오류 분석 체계에서 '어순' 범주가 가지는 위치는 상이하다. 이는 다음〈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오류 범주별 비교⁴⁶⁾

	발음	어휘	문법				담화	철자
			조사	어미	문장	기타(표현)		
김정숙		자립할 수 있는 낱말	조사, 어미, 어순, 활용, 특정한 유형의 기타 표현, 문장 호응				일관성, 적관성, 접속사	
이정희	조음	어휘 파생, 호응	조사, 어미, 보조용언, 시제, 높임법, 어순, 맞춤법, 담화 맥락					
서상규		형태	문법 요소	활용	어순	문장구성	화용	철자
조철현		어휘	조사	어미	어순	구 전체		철자

위의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순 오류를 문법 범주 오류로 다루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어 단위에 따라 언어 연구 분야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으로 분류한다. 이럴 경우에는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괄하는 범주이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는 보통 "한국어는 문법이 어렵다."는 식의 말을 하는데, 이 경우의 문법이라는 것은 '발음, 곡용, 활용, 어순, 호응'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그렇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문장은 문법 범주에 들어가고, 문장 층위에서 일어나는 오류에는 어순 오류가 있다.

문법 안에서 어순 범주를 다루는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보인다. 서상규 외(2002)와 조철현 외(2002)에서는 어순 오류를 문법 범주 중에 중요한 독립적인 하위 범주로 선정하였다⁴⁷⁾. 반면에 김정숙

46) 유희선(2018:364) 참고.

(2002)과 이정희(2002)에서는 어순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조사 오류, 어미 오류와 함께 어순 오류를 문법 범주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형을 구분한다면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한 오류 유형은 모두 12개로 편의상 아래 <표 3-2>로 비교하였다⁴⁸⁾.

<표 3-2> 오류 유형 비교

	회피	침묵	대치	누락	첨가	환언	형태	표현	잘못	어순	한국어에 없는 어휘	혼합
김정숙	회피	침묵	대치	누락	첨가		오형태			어순		
이정희			대치	누락	첨가	환언				어순		
서상규			대치	누락	첨가	환언	형태 / 활용 오류	표현		어순	한국어에 없는 어휘/ 표현	혼합
조철현			대치	생략	첨가	환언	불규칙 동사 어휘 형태	표현	잘못	어순		혼합

어순 오류는 범주별 구분에서는 문법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오류 유형 중에서는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행 연구에서는 어순 오류가 문법 범주 중심의 접근이나 오류 유형 중심의 접근 중 어느 한 쪽에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김정숙·김유정(2002)에서는 오류 현상에 따른 분류에 접근하였고, 이정희(2002)와 조철현(2002)에서는 범주별 분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접근에서는 오류 분석의 분류 기준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정희(2002)에서는 오류 현상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숙·김유정(2002)에서는 오류 층위, 오류 양상, 오류 영역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류 현상 전반에 대한 정보 추적을 계단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어서 조합이라고 할 수 있

47) 상위에는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

48) 유형선(2008:369)참고

다. 조합형은 범주 차원에서의 해당 오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현상 차원에서의 오류를 점검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면이 있으나, 오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유용하다.

기존의 오류 분석 연구들은 어순의 위치를 생략이나 첨가와 같은 오류 양상의 일종으로 다루거나 통사 영역에 속하는지를 연구마다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어순 오류를 통사 차원에서 살펴본다. 즉, 문장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고 한국어의 어순 유형을 2장에서 제시한 한국학 관련 논의에 기대어 문장(기본) 어순,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부속성분 간의 어순 항목으로 틀을 마련한다.

첫째, 문장 어순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는 유형적 관점에서 끝자리 동사언어에 속하며 SOV 어순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기본 문형에 근거하여 오류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⁴⁹⁾.

둘째,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대한 논의는 관형어의 수식 어순과 부사어의 수식 어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관형어의 수식 어순은 ‘체언+관형격 조사’-명사/구’ (동생의 선생님), ‘관형사-명사/구’ (새 집), ‘관형형-명사/구’ (철수가 산 운동화)로 구분하여 오류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 부사어의 수식 어순은 ‘문장 부사어-문장/절’, ‘성분 부사-용언/구’ (많이 먹는다), “-게”형 부사어-용언/구’ (행복하게 산다), “체언+조사”형 부사어-용언/구’ (학교에 간다)로 구분하여 오류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⁵⁰⁾.

셋째,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대한 것이다. 관형어 간의 어순은 ‘지시-수-{모양/상태/성질}’ 어순을 취하며 문장 부사어가 성분 부사어에 앞서고 부사어 간의 어순으로 시간 부사어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으로 빈도/정도 부사어, 도구 부사어, 장소 부사어, 회수 부사어, 원인 부사어, 상태 부사어의 순서에 취하여 오류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⁵¹⁾.

여기서는 기존 논의의 분류 틀과 선정한 자료에서 발견한 어순 유형을

49) 2.2.1에서 제시한 <표2-3>을 참고.

50) 2.3.2에서 제시한 <표2-15>을 참고.

51) 2.3.3에서 제시한 <표2-16>를 참고.

재조정하여 한국어 어순의 유형을 다음<표 3-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3-3>한국어 어순의 분류 및 분석틀

대분류	중분류	
기본 어순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관형어의 수식 어순	‘체언+관형격 조사’ - 명사/구
		관형사 - 명사/구
		관형형 - 명사/구
	부사어의 수식 어순	문장 부사어 - 문장/절
		성분 부사 - 용언/구
		‘-게’형 부사어-용언/구
		‘체언+조사’형 부사어-용언/구
	부속성분 간의 어순	관형어 간의 어순
부사어 간의 어순		접속-양태
		시간-빈도-장소
		시간-장소-회수
		시간-장소-원인
		시간-도구-장소
		시간-장소-상태

3.2 분석 결과

3.2.1 글쓰기 분석 결과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의 어순 오류를 분석한 결과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기본 문장 어순에 대한 오류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급 학습자들이 단문 위주로 문장을 생산하고 다양한 문장 성분을 갖추어서 발화할 때는 기본적인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틀을 유지하는 교재가 편찬되어 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재 기반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기본 문형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기본 어순에 관한 오류를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의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뉘었을 때 서술부의 문장 성분 간의 어순 배열과 서술부 내에서 부사구 안의 문법 항목에 관한 어순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이다. 첫째, 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다르며 한국어의 부사어는 '체언+부사격 조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반면에 베트남어의 부사어는 전치사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어의 부사 어순 배열과 베트남어의 부사어 배열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베트남어의 부사어와 부사구 사용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한국어 문장 성분 또는 문법 항목 간의 부적절한 배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류를 발생하기가 쉽다.

오류 문장을 찾아보니 베트남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오류 정도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부자연스러운 어순을 보이는 경우와 자연스러운 어순이

지만 베트남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다. 이들 역시 부사(어)의 경우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부사어의 범위와 배열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오류만 주목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성분 간의 어순에서는 부사어의 어순을 주목하고 오류는 아니지만 베트남어의 어순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까지 고찰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들의 순서가 다른데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비교한 것으로 기반으로 편찬되지 않고 한국어 기본 문형만 가르치기 때문에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어순 오류를 쉽게 범하고 오류는 아니지만 베트남어의 어순상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제2 언어 사이의 통사구조가 엄격히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문법 문형⁵²⁾(문장 성분 간의 배치 및 성분 내 개별문법항목의 배열인 어순)의 차이를 넘어 표현 문형에서도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은 학습자들의 어순 오류 양상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각 오류 유형에 대한 통사적인 차이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2.1.1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수집한 자료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기본 문장에서는 부적절한 면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3-4>를 통해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2) 한국어 교재에 나온 문법항목 혹은 문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호한 경향이 있는 관계로 필자는 이에 대한 기준을 민현식(2005)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민현식(2005)에서 언급하는 문법 문형을 필자는 문장 성분 간의 배열과 문장 성분 내 개별문법항목의 배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다.

민현식(2005): 한국어의 한국어 교재들에서 학습 내용으로 제시한 문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문법 범주에 따른 문형들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 표현들을 문형화한 것이다. 전자는 문법 문형, 후자는 표현 문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 문형은 화용적 성격이 큰 것이라 담화 문체와 관련된다. 문법 문형에서는 <수식어+피수식어>구조를 비롯하여 <주어+(목적어)+서술어>가 국어 어순에서 가장 중요한 어순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표현 문형은 문법 항목과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꼭 등장하는 화용적, 관용적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N1...N2보다 낫다/못하다' 구문과 같은 것은 비교 구문이라는 문법 문형으로 볼 수 있고 비교 표현이라는 표현 문형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후자로 처리하겠다.

〈표 3-4〉기본 어순에 나타난 오류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1	Mai 사다가 커피 에서 백화점습니다.	Mai는 백화점에서 커피를 삽니다.
2	Quan 일하다 에서 한국 기업습니다.	Quan는 한국 기업에서 일합니다.

위 〈표 3-4〉와 같은 문장 어순 오류를 발생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 30) ① Mai 사다가 커피 에서 백화점습니다.
 ② Quan 일하다 에서 한국 기업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기본 어순 배열과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 배열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 배열 사용을 한국어에 적용시켜 한국어 문장 성분 간의 부적합한 배열을 보인다. 그렇지만 2급까지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한국어 기본 어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이러한 기본 어순에 관련 오류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위(30)을 베트남어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아래 (31)과 같다.

- 31) ① Mai mua cà phê ở cửa hàng bách hóa.
 Mai 사다 커피 에서 백화점
 ② Quân làm việc ở công ty Hàn Quốc.
 Quan 일하다 에서 기업 한국

(30)와 (31)을 비교해 보면, (30)에서는 한국어를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기본 어순에 따라 배열하지만 (31)과 같은 베트남어는 ‘주어-서술어-목적어-부사어’ 기본 어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즉, (30-1)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바꿈으로 인하여 ‘주어-서술어-목적어-부

사어'의 어순 오류 문장이 된 것이다. (30-2)의 경우에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바꿈으로 인하여 '주어-서술어-부사어'의 어순 오류 문장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어순에서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부사어'의 어순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1.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 어순에 관한 오류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우선, 관형어 수식 어순에서는 다음 <표 3-5>와 같은 오류를 보인다.

<표 3-5> 관형어의 수식 어순 오류를 지닌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1	그녀는 머리가 긴 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가 있습니다.
2	살 저는 집에 넓은어요.	제가 사는 집은 넓어요.
3	우리 엄마는 예쁜 부엌에 요리해요.	우리 예쁜 엄마는 부엌에 요리해요.
4	나비 씨는 한 여자 재밌고 친절하고 착해요.	나뻬 씨는 재밌고 친절하고 착한 여자예요. ⁵³⁾
5	값의 이 책상이 41.3200원입니다.	이 책상의 값이 41.3200원입니다.
6	거기서 유명한 여러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샀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샀어요.

(32)와 같은 오류가 생긴 이유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수식어와 피수식

53) 번역체지만 비교를 위해 이렇게 표현했음을 제시한다.

어의 관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가 명사의 앞에 위치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수 관형어만 명사의 앞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32)를 베트남어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다음 (33)과 같다.

32)① 그녀는 머리가 긴 있습니다.

② 우리 엄마는 예쁜 부엌에 요리해요.

③ 나비 씨는 한 여자 재밌고 친절하고 착해요.

④ 값의 이 책상이 41.3200원입니다.

⑤ 살 저는 집에 넓은어요.

⑥ 거기서 유명한 여러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샀어요.

33) ① Cô ấy có mái tóc dài.

그녀 있다 머리 길다

② Người mẹ xinh đẹp của chúng tôi nấu ăn trong bếp.

어마 예쁘다 -의 우리 요리하다 에서 부엌

③ Nabi là một cô gái thú vị, thân thiện và tốt bụng.

나비 이다 하나 여자 재미있다 친절하다 -고 착하다

④ Giá của... bàn học này là 413.200won.

값 -의 책상 이 이다 41.3200원

⑤ Ngôi nhà tôi sống rộng.

집 나 살다 넓다

⑥ Tôi ăn các loại thức ăn nổi tiếng và mua đồ lưu niệm ở

đó.

나 먹다 여러 음식 유명하다 -고 사다 기념품 거기서

(32-1)~(32-4)와 (33-1)~(33-4)를 비교하면 학습자들이 베트남어의 '피수식어-수식어' 어순을 한국어 문장에 적용시켜 문장 성분 간의 배열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32-1)에서는 '긴 머리'로 써야 하는데 '머

리 낀'으로 쓰고 (32-2)에서는 맞는 '예쁜 엄마' 어순은 틀린 '어마는 예쁜'으로 쓴다. (32-3)는 '재미있고 친절하고 착한 여자'를 '여자 재밌고 친절하고 착해요'로 어순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32-4)에서는 '이 책상의 값'을 '값의 이 책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32-5)의 경우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가 '관형어-명사'으로 어순 배열되는 것을 인식하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은', '는'을 활용하여 관형절을 만드는데 오류를 보인다.

(32-6)의 경우는 위의 예들에 비해 오류 정도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부자연스러운 어순을 보인다.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유명한 여러 음식'이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순은 아니다.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 중에 부속성분 간의 특성을 지니는 문장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부사어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부사어를 보는 방식이 다르며 한국어의 부사어 어순 배열과 베트남어의 부사어 어순 배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사어 수식 어순에서는 다음 <표 3-6>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표 3-6> 부사어의 수식 어순 오류를 지닌 문장

	틀린 문장	정확한 문장
1	과함께 친구, 동생으러 Da Lat에 가요.	동생은 친구와 함께 Da Lat에 가요.
2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도 먹어야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어요.
3	도서관도 아주 책을 많습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아주 많습니다.
4	지금에 Da Lat 많이 사람이 있어요.	Da Lat에는 지금 사람이 많이 있어요.
5	너는 겨울옷을 사기 위해 많은 돈	너는 겨울옷을 사기 위해 돈을 많

	을 기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 기지고 갈 필요가 있다.
6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7	우리 오빠는 아주 운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오빠는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8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9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책을 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거기에서 책을 읽습니다.
10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쉽게 사람을 사귄 수 있습니다.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쉽게 사귄 수 있습니다.
11	Duan하고 Tuan Anh은 학생 식당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Duan은 Tuan Anh하고 학생 식당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12	오늘은 저하고 친구가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13	지난 주말에 저하고 누나는 시장에 가요.	저는 지난 주말에 누나하고 시장에 가요.
14	제 부모님께서서는 고향에서 살지만 저하고 오빠가 하노이에서 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고향에서 살지만 저는 오빠하고 하노이에서 삽니다.

위<표 3-6>의 문장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사어 어순 오류는 학습자들이 목적어와 부사 그리고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부사어는 범위와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매우, 일찍, 보통, 정말,... 등 같은 한국어 부사어를 베트남어에서는 보어로 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사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⁵⁴⁾. 그리고 베트남어 기본 문형은 주어와 서술어로 만들어진다고 보고 주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서술어로 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목적어를 인식하기가 힘들다⁵⁵⁾. 또한, 베트남어에서는 부속성분들이 문두나 문미에

54) 2.2.2에서 제시한 <표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위치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중간에 위치하고 수식받는 말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아래 문장과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부사어의 위치를 못 찾는다.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다음 (34)와 같은 동반의 부사어 오류를 보인다.

34) 과함께 친구, 동생으러 Da Lat에 가요.

(34)와 같은 오류의 원인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 성분을 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용과 어순도 다르지만 학습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같이'와 '함께'는 부사이고 '-하고/ 와/ 과'는 '동반의 부사격 조사'와 같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같이, 함께'와 같은 뜻을 가지는 'và, với, cùng'는 연어로 보고 개별 어휘로 사용한다. 그리고 바로 주어의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34)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이러한 오류를 (35)에서 베트남어 문장과 비교하면 알게 될 것이다.

35) Cùng với bạn, em đi Đà Lạt.
-함께 과 친구 동생 가다 Da Lat

그리고 (35)와 같은 어순 오류 외에 어순 오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동반 부사어에 관한 오류를 많이 볼 수 있다. 다음 (3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6) ① 한: Duan하고 Tuan Anh은 학생 식당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베: Duan và Tuấn Anh uống bia ở nhà ăn học sinh.

Duan -하고 Tuan Anh 마시다 맥주 에서 식당 학생

55) 2.2.2에서 제시한 <표8>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② 한: 오늘은 저하고 친구가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베: Hôm nay, tôi và bạn uống cà phê ở quán cà phê.

오늘 저 -하고 친구 마시다 커피 에서 카페

③ 한: 지난 주말에 저하고 누나는 시장에 갔어요.

베: Cuối tuần trước, tôi và chị gái đã đi chợ

주말 지난 저 하고 누나 과거 가다 시장

④ 한: 제 부모님께서서는 고향에서 살지만 저하고 오빠가 하노이에서 삽니다.

베: Bố mẹ tôi sống ở quê còn tôi và anh trai sống ở Hà Nội.

부모님 우리 살다 에서 고향 -지만 저 하고 오빠 살다 에서 하노이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성분 부사어 중 용언을 수식하는 '너무', '아주', '많이' 등의 부사어를 용언보다 앞선 주어나 목적어 앞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특히 '많이'+목적어+서술어 어순 오류는 부사어 '많이' 대신 관형어 '많은'으로 대체 사용되는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를 다음(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①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도 먹어야 했어요.

② 우리 오빠는 아주 운동을 좋아합니다.

③ 도서관도 아주 책을 많습니다.

④ 지금에 Da Lat 많이 사람이 있어요.

⑤ 너는 겨울옷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⑥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요.

((37-1), (37-2), (37-3)에서는 ‘아주, 너무’ 경우는 한국어의 부사어인데 베트남어에서는 보어이고 똑같이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한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부사어로서 인식하여 주어의 앞에 놓고 쓰고 '성분 부사어-주어'의 어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관형어와 달리 베트남어의 관형어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파생어도 없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이 파생 부사어 '많이'도 없고 관형형 '많은'도 없다. 베트남어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 '많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nhiều'이 있는데 관형어나 부사어로 쓸 때도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된다. 이를 다음 (3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8) ① 한: 사람이 많다.

베: Người nhiều.
사람 많다

② 한: 많은 사람이 김치를 못 먹는다.

베: Nhiều người không thể ăn kim chi.
 많다 사람 -못 먹다 김치

③ 한: 나는 많이 먹었다.

베: Tôi đã ăn nhiều.
 나 과거 먹다 많다

(38)을 보면 베트남어에서는 형용사 '많다'가 'nhiều'이고 관형사 '많은'도 'nhiều'이고 부사어 '많이'도 'nhiều'이다.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많다', '많은', '많이'가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사용할지 인식하기가 어렵고 (37-4)에서 '많이-주어'와 (37-5)에서 '많은-목적어-서술어'와 같은 오류를 보인다.

(37)을 (39)에서 베트남어 문장과 비교하면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39) ① Vì giảm cân tôi đã quyết định không ăn tối nhưng mà quá đói tôi đã ăn.

-위해 살을 빼다 나 과거 -기로 안 먹다 저녁 그런데 너무 배고프다 먹었다.

② Anh trai tôi rất thích thể dục.

오빠 우리 아주 좋아하다 운동

③ Thư viện rất nhiều sách.

도서관 아주 많다 책

④ Bây giờ Đà Lạt nhiều người.

지금 Da Lat 많다 사람

⑤ Cậu cần mang nhiều tiền để mua quần áo mùa đông.

너 필요하다 가지다 많다 돈 -위해 사다 옷 겨울

⑥ Chúng tôi nói nhiều chuyện.

우리 말하다 많다 이야기

다음으로, 위의 예들에 비해 오류 정도는 약하지만 다음(40)의 예들은 어느 정도 부자연스러운 어순을 보이는 경우이다.

40) ①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정말 가고 싶습니다.

②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책을 주로 읽습니다.

③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쉽게 사람을 사귄다 수 있다.

(40-1), (40-2)에서는 '정말', '주로' 같은 문장 부사어로서 가장 먼저 나오고 문장의 뜻을 전체적으로 꾸며 준다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술어의 앞에 놓고 써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것이다. (40-3)에서 '쉽게'는 동사 '사귀다'를 수식해 주고 앞에 나와야 하지만 학습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어 '사람'의 앞에 놓고 쓰기 때문에 '부사어-목적어'의 어색한 어순을 볼 수 있다 . 그렇지만 (40)과 같은 표현은 한국어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 중에 자연스럽게 베트남어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항상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문두에 놓고 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장에서는 '시간 부사어-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이나 '장소 부사어-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 혹은 '시간 부사어-장소 부사어-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배열된다. 다음 <표 3-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7> 부사어 문두에 놓고 쓰이는 문장

		문장
시 간 부사어 -문장	1	내년에 한국에 제 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2	어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	내일, 11월 30일에 저는 카페에서 친구와 공부합니다.
	4	어제를 호주어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요리했어요.
	5	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피곤했어요.
	6	내일을 우리 같이 도서관에서 수학 숙제를 합시어요.
	7	오늘은 저하고 친구가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8	오늘은 란 씨가 숙제를 안 했어요.
	9	모래, 12월 1일 수요일에 저는 학교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을 만납니다.
	10	또 나중에 저는 한국어를 계속 열심히 공부할겁니다.
	11	어렸을 때 저는 한국 영화를 봤어요.

12	올해 저는 다랏에서 여행라고 싶어요.
13	주말에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14	그런데 어제 미현 씨는 아파서 학교에 안 갔어요.
15	이번 여름 방학에 우리 가족과 저는 함께 나트랑에서 여행을 갈 겁니다.
16	그리고 밤에 언니와 여동생과 저는 야경을 하러 카페에 갔어요.
17	지난 주말에 저하고 누나는 시장에 갔어요.
18	오후 6시에 우리는 노래방에서 만났어요.
19	저녁에 우리가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봤어요.
20	그래서 주말에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고 밖에 친구들과 먹어요.
21	그날 저는 아주 행복했어요.
22	지난 주말에 우리는 남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23	지난 목요일에 Mai 씨는 프랑스어 말하기 시험을 봤어요.
24	토요일에 우리가 시장에서 옷하고 과일을 샀어요.
25	일요일에 우리가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식사했어요.
26	어제 저는 하고 제 친구는 영화를 봤어요.
27	오늘 아침 저는 아침을 안 먹었어요.
28	지난주에 저는 우체국에 갔어요.
29	어제 제 어머니는 바빴어요.
30	제 생일에 저는 한국 CD 두 개를 받고 싶어요.
31	어제 저는 한국어 선생님과 같이 한국 영화를 봤어요.
32	지난해 생일에 제 동생이 사진을 받았어요.
33	어제 저는 하고 제친구는 영화를 봤어요.

34	오늘 아침 저는 아침을 안 먹었어요.
35	2년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호찌민에 갔습니다.
36	어릴 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37	11월 29일 월요일에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38	12월 3일 금요일에 저는 식당에서 가족이 밥을 먹습니다.
39	앞으로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40	12월 2일 목요일에 저는 공원에서 여동생과, 엄마, 아빠함께 산책합니다.
41	12월 4일 토요일에 저는 극장에서 친구와 영화를 봅니다.
42	주말까지 우리는 집에 돌아왔어요.
43	점심에 우리 가족들은 부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44	아침 6시에 저는 일어납니다.
45	저녁에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46	저녁 식사 중에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합니다.
47	오늘 저는 수업 없습니다.
48	오전에 Tuan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49	오늘 Mai 씨는 Nam의 전화를 받았어요.
50	주말에 Mai는 독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51	어제 저는 닭 두 마리하고 생선 3마리를 샀어요.
52	평일에는 저는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53	주말에 가수는 노래해요.
54	작년에 우리 가족과 저는 함께 나트랑에서 여행을 갔어요.
55	후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56	저녁에 우리는 흥대에서 산책할 겁니다.
	57	저녁에 우리는 함께 먹으러 가고 남산 터위에 왔어요.
	58	다음날 우리는 쇼핑을 하러 동대문에 갔어요.
시 간 부사어 -절	1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 저는 한국 영화를 봐요.
장 소 부사어 -문장	1	시장에 저는 바나나 사러 갔지만 바나나는 아주 비쌌어요.
	2	여기에 제 누나는 티셔츠 한 개와 치마 한 개를 샀어요.
기타	1	내년에 한국에 제 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2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어요.
	3	보통 주말에 저는 회사에 다녀요.

위<표 3-7>의 문장들은 앞서 2.3.2에서 제시한 <표 2-13>과 2.3.3에서 제시한 <표 2-1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베트남어에서는 시간 부사어가 문두에 위치하고 장소 부사어가 문미에 위치하면서 문두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는 같이 나오면 '시간 부사어-장소 부사어'의 어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문두에 놓고 쓰는 이유는 바로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은 '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에서 '명사-관계절', '명사(소유물)-의-명사 (소유자)', '성분 부사어-주어', '아주/ 많이(많은)-목적어-서술어' 어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동반 부사어 '같이/함께'와 '와/과/하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사어-목적어-서술어', '문장부사어-서술어' 어색한 어순을 사용하고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문두에 놓고 쓰는 특성을 볼 수 있다.

3.2.1.3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관형어는 여러 개를 겹쳐 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형어 간의 어순 오류는 거의 없다. 한편 부사어는 여럿을 겹쳐 쓰는 경우가 많고 부사어 간의 호응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부사어 간에서는 어순 오류가 보인다. 다음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8> 부사어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 오류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1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더 공부할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2	저는 영어로 주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3	저는 일찍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4	저는 금요일에 한국어를 보통 공부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보통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표 3-8>의 틀린 문장들은 앞서 2.2.2에서 제시한 <표 2-7>과 2.3.3에서 제시한 <표 2-1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부사어들이 서술어 앞에 놓여 쓰며 부사어를 결합할 때 시간 부사어-빈도 부사어-장소 부사어-도구 부사어/정도 부사어/공동 부사어-방향 부사어-회수 부사어-양태 부사어가 일반적인 어순이 된다. 따라서 (41-1)의 경우는 정도 부사어 '더'는 양태 부사어 '열심히'의 앞에 나와야 하고 (41-2)의 경우에는 빈도 부사어 '주로'가 도구 부사어 '영어로'의 앞에 나와야 하지만 학습자가 인식 못하고 '양태 부사어-정도 부사어', '도구 부사어-빈도 부사어' 어순으로 사용해 오류가 발생된다. 그리고 (41-2)에서 부사어 '일찍'은 베트남어 문장내부 문미에 위치하는데 한국어 문장내부 중간에 나온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중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 부사

어 - 성상 부사어'의 어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배열하였다. 다음 (41)에서 한국 오류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을 비교해서 알게 된 것이다.

41)① 오문: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더 공부할 거예요.

베: Tôi sẽ học tiếng Hàn chăm chỉ hơn.

저 미래 공부하다 한국어 열심히 더

② 오문: 저는 영어로 주로 말했습니다.

베: Tôi nói chuyện bằng tiếng Anh là chủ yếu

저 말하다 -(으)로 영어 주로

③ 오문: 저는 일찍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베: Sáng, tôi xuất phát sớm.

아침 저 출발하다 일찍

42) ① 저는 금요일에 한국어를 보통 공부합니다.

② 저는 금요일에 보통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42)의 경우에는 둘 다 '시간 부사어-정도 부사어' 어순에 따른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②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다음 <표 3-9>와 같은 어순상의 특성을 볼 수 있다.

<표 3-9>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

	한국어 어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
기본 어순	목적어-서술어	서술어-목적어
	부사어-서술어	서술어-부사어
주성분과 부속 성분 간의 어순	관계절-명사	명사-관계절
	소유자 명사-의-소유물 명사	소유물 명사-의-소유자 명사

	문장 부사어- {주어-목적어-성분 부사어- 서술어}	성분 부사어- 주어
		부사어-목적어-서술어
		문장 부사어-서술어
	주어-부사어(명사+와/과/하고)-부사어(같이)	주어(명사+와/과/하고)-부사어(명사+은/는)
부속성분 어순	정도부사어-양태 부사어	양태 부사어- 정도
	정도부사어-도구 부사어	도구 부사어-정도 부사어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사어의 어순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관형어 수식에 관한 어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하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베트남어의 어순을 한국어에 적용해 '피수식어-수식어' 어순 오류가 발생된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문장성분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목적어와 부사어 그리고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한국어 문장 안에 부사어의 위치를 못 찾아 잘못 배열된다.

3.2.2 구두 인터뷰 분석 결과

앞서 수집한 글쓰기 중에 어순 오류를 보이는 문장을 찾은 후 이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의 어순상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초급 과정인 2급 베트남인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구두 인터뷰를 통해 글쓰기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을 검증해 볼 것이다.

구두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어순이 어색한 문장과 오류 문장 중에 15개를 선정하고 학습자에게 베트남어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하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인 언어학박사에게 학습자들이 번역한 문장에서 어순 오류 문장을 찾아보

라고 부탁하였다.

구두 인터뷰의 결과는 앞에서 수집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서술부의 문장 성분 간의 어순 배열과 서술부 내 부사구 안의 문법 항목에 대한 어순 오류이다. 그리고 '서술어-부사어' 어순 오류는 글쓰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구두 인터뷰에서는 보인다. 다음에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을 제시·분석해보도록 하겠다.

3.2.2.1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기본 어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기본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제시 문장	오류 문장	
	수량	문장
Hôm nay, Mai mua cà phê ở trung tâm thương mại. Mai 씨가 오늘 백화점에서 커피를 샀어요.	1	오늘은 Mai 커피 사다 쇼핑몰에서입니다.
Từ năm ngoái, Tuấn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àn Quốc. Tuấn 씨가 작년부터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0	

글쓰기를 분석한 결과와 같이 구두 인터뷰에서도 기본 어순 오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2급까지 한국어

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어순에 익숙해지면서 주성분 간의 어순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오류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은 다음(43)과 같다.

43) ① 오답: 오늘은 Mai 커피 사다 쇼핑몰에서입니다.

② 베: Hôm nay, Mai mua cà phê ở trung tâm thương mại.
 오늘 Mai 사다 커피 에서 쇼핑몰

(43-1)의 한국어 오류 문장의 어순은 '시간 부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장소 부사어'이다. 베트남어에서는 '커피 사다' 모두를 서술어로 보기 때문에 (43-2)의 베트남어 문장의 어순은 '시간 부사어- 주어- 서술어-장소 부사어'이다. (43-1)과 (43-2)를 비교하면 이러한 '서술어-부사어' 어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습자들이 베트남어의 어순 배열을 한국어 문장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에서 어순 오류 문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와 달리 구두 인터뷰에서는 말로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짧고 고칠 시간도 없어서 모국어의 영향이 더 미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대화에서 처음에 서술어는 항상 목적어 앞에 먼저 나오다가 다시 '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바꾸는 현상을 보인다.

3.2.2.2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첫째, 관형어 수식에 관한 어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의 내용과 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관형어 수식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제시 문장	오류 문장	
	수량	문장

Cô ấy có mái tóc dài 그녀는 긴 머리가 있어요.	2	1. 그 여자는 <u>머리 긴</u> 있어요.
		2. 그녀 <u>머리를 길</u> 있어요.
Người mẹ xinh đẹp của chúng tôi nấu ăn trong bếp. 우리 예쁜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해요.	2	1. 우리 <u>어머니는 예쁜</u> 부엌에서 요리해요.
		2. 우리의 <u>어머니는 예쁜</u> 주방에서 요리해요.
Giá của chiếc bàn học này 413.200won.	1	<u>값의 책상</u> 은 41.3200원입니다.

위 <표 3-11>을 통해 글쓰기에서 나오는 관형어 수식에 관한 특성은 구두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것을 검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 언어의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머리 긴', '머리 길', '어머니는 예쁜'과 같은 '명사-관계절' 어순 오류를 많이 보인다. 또는 '값의 책상'과 같은 '소유물 명사-의-소유자 명사' 어순 오류를 발생한 것도 볼 수 있다.

둘째, <표 3-12>는 부사어 수식에 관한 어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의 내용과 결과이다.

<표 3-12> 부사어 수식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제시 문장	오류 문장	
	수량	문장
Vì tôi là người hoạt bát nên kết bạn dễ dàng.	2	1.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친구를 사귀 쉽해요.
		2.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친구를 사귀게 쉬어요.

Anh trai tôi rất thích thể dục. 우리 오빠는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1	오빠는 아주 운동을 좋아해요.
Ở thư viện, sách rất nhiều. 도서관에서는 책이 아주 많아요.	1	도서관에서 아주 많은 책입니다.
Hôm nay, tôi cùng bạn uống cà phê ở quán cà phê. 저는 오늘 친구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3	1. 오늘 커피숍에서 저는 친구를 같이 커피를 미십니다. 2. 오늘 친구를 같이 커피숍에서 마셨어요. 3. 오늘 저는 친구를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Cuối tuần tôi cùng em gái đi Đà Lạt. 저는 주말에 동생하고 Da Lat에 같이 가요.	2	1. 주말에 저와 여동생은 Da Lat에 갈 거예요. 2. 주말에는 저는 동생을 같이 Da Lat에 가요.
Bây giờ, Đà Lạt nhiều người. Da Lat에서는 지금 사람이 많이 있어요.	2	1. 지금 Da Lat에서 많은 사람이예요. 2. 지금 Da Lat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Cậu cần mang nhiều tiền để mua quần áo mùa đông. 너는 겨울옷을 사기 위해 돈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2	너는 겨울옷을 샤테려고 많은 돈을 가져가야 해요. 너는 겨울옷을 사려 많은 돈을 가져가 필요있어요.

〈표 3-12〉를 보면 글쓰기에서 나오는 부사어 수식에 관한 특성은 구두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검증할 수 있고 그 외에 글쓰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어순 특성도 보인다.

우선, 학습자들은 글쓰기에서와 똑같이 구두 인터뷰에서도 성분 부사 중 수식하는 '아주', '많이' 등의 부사어를 용언보다 앞선 주어, 목적어나 부사어 옆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특별히, "많이-목적어-서술어" 어

순 오류는 부사어 '많이' 대신 관형어 '많은'으로 대치 사용되는 오류도 발견되었다⁵⁶⁾. 이를 다음(4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44) ① 오빠는 아주 운동을 좋아합니다.
② 도서관에서 아주 많은 책입니다.
③ 지금 Da Lat에서 많은 사람이에요.
④ 지금 Da Lat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⑤ 너는 겨울옷을 샀으려고 많은 돈을 가져가야 해요.
⑥ 너는 겨울옷을 사려 많은 돈을 가지가 필요있어요.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또는 동반 부사의 사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45)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 45) ① 주말에 저와 여동생은 Da Lat에 갈 거예요.
② 주말에 저와 여동생을 같이 Da Lat에 가요.

또는, 글쓰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오류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서술어-부사어' 어순 오류이다.

- 46) ①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친구를 사귀 쉽해요.
② 저는 활발한 사람이라서 친구를 사귀게 쉬워요.

한국어에서는 양태 부사어 '쉽게'가 동사 '사귀다'를 수식해 주고 앞에 나와야 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양태 부사어가 나온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베트남어의 어순을 적용해 (46)과 같은 오류가 발생된다.

그리고 기본어순 경우와 같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습자들

56)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앞서 3.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 항상 ‘피수식어-수식어’의 어순으로 말하다가 다시 ‘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으로 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3.2.2.3 부속성분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표 3-13〉은 부사어가 여러 개를 겹쳐 쓰는 경우에서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의 내용과 결과이다.

〈표 3-13〉 부사어 간의 어순에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 검증 결과

제시 문장	오류 문장	
	수량	문장
Buổi sáng, tôi đã xuất phát sớm. 저는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1	아침 일찍 저는 출발했어요.
Tôi chủ yếu nói chuyện bằng tiếng Anh. 저는 주로 영어로 말해요.	4	1. 저는 영어로 주로 이야기해요.
		2. 저는 영어로 주로 이야기해요.
		3. 저는 영어로 주로 말해요.
		4. 저는 영어를 주로 이야기해요.
Tôi sẽ học tiếng Hàn chăm chỉ hơn.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1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표 3-13〉을 통해서 글쓰기에서 나타난 어순상의 특성은 구두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나온 것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양태 부사어-정도 부사어', '도구 부사어-빈도 부사어' 어순으로 사용해 오류가 발생된다.

그리고 수집한 글쓰기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항상 시간 부사어와 장소 부사어를 문두에 놓고 쓴다는 특징도 검증할 수 있었다. 또는, 부사어는 여럿이 겹쳐 쓰는 경우에 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목적어와 부사 그리고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두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다음 <표 3-14>와 같은 어순상의 특성을 볼 수 있다.

<표 3-14>구두 인터뷰에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

	한국어 어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
기본 어순	목적어-서술어	서술어-목적어
	부사어-서술어	서술어-부사어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어순	관형어-명사	명사-관형어
	문장 부사어- {주어-목적어-성분 부사어- 서술어}	성분 부사어- 주어
		부사어-목적어-서술어
		문장 부사어-서술어
주어-부사어(명사+와/과/하고)-부사어(같이)	주어(명사+와/과/하고)-부사어(명사+은/는)	
부속성분 간의 어순	정도부사어-양태 부사어	양태 부사어- 정도
	정도부사어-도구 부사어	도구 부사어-정도 부사어

글쓰기와 구두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베 어순 차이가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국어 어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순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급 단계부터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상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IV.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 선정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초급 학습 단계에서는 베트남어 어순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차이는 초급 학습자에게 학습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앞의 글쓰기와 구두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4.1 한국어 어순 교육의 원리와 목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어떠한 언어에서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전에 학습된 제1 언어인 모국어와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제2 언어 학습의 어려움은 과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해 있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오류 자료를 연구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화해서 단계적이고 순차적이며 순환적인 교육 과정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부딪힐 장애물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습자가 느낄 학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과 관련해서는 서술어 중심의 문형과 조사, 활용 등의 문법 항목에 초점을 맞춰 교재가 편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 문형의 설정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혹은 언어권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기본 문형 지도 및 어순 지도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석주연(2005)은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 문형 지도에 관한 성분에 대한 인식, 성분의 배열, 성분 간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문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⁵⁷⁾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같은 언어 유형에 속해 있는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 내용의 입력과 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다른 SVO 유형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의 출력 또한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3장에서 학습자들의 글쓰기와 구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한국어 어순의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적용한다.

첫째, 교사는 가장 먼저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기본 어순을 설명해 주고 문장 내에서의 각 문장 성분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어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배우며 사용하면 오류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급 때부터 학습자에게 정확한 한국어 어순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어순의 특성에 대해 명시적 설명해 주

57) 이에 대해 내용으로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발생하는 학습자 오류 문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에서 문장의 호응, 어순 등에 있어 오류가 자주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문장의 성분, 그 배열, 성분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반복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교정을 어렵게 하는 상태로까지 가기 쉽다. 둘째, 이러한 기본 문형 지도의 목표점은 규범 문법의 기본 문형 지도의 목표점과 조화된다. 현행 학교 문법의 기본 문형 관련 기술은 성분을 중심으로 한 문형 구조의 이해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게도 성분을 중심으로 문형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문형 지도는 기능이나 표현의도 중심의 구어적 문형에 대한 지도를 보완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성분을 중심으로 문장을 도해하고 분석하지 않고서는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길고 다소 복잡한 문장을 쓸 경우에도 한국어의 기본적 문형 구조와 그 성분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기 힘들다(석주연, 2005).

어야 한다. 한국어는 형태적 격조사를 가지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어순은 절대적인 자유 어순이 아니라 고정 어순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가 이러한 문법적 지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교사는 학습자가 이러한 한국어 어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베트남어의 어순 차이를 학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학습자 오류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언어간전이(inter-lingual transfer)이다⁵⁸⁾.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전에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는 모국어 밖에 없기 때문에 모국어의 간섭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사는 학습자 중심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을 대조하여 학습자에게 유사점을 설명해주며, 이는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가 한국어 어순에 익숙해야만 모국어의 간섭을 떨쳐버리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어순 교육을 단독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수업 때마다 나타는 간단한 어휘와 문장을 이용하고 학습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배웠던 지식을 통해 어순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정확한 한국어 어순 사용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학습자가 어순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 수행을 적용해야 한다. 학습자가 목표 어순을 실제 사용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어순 연습을 바탕으로 하는 과제 수행을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는 적극적인 연습하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

어순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좋은 의사소통 능력은 교사에만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

58) H.Douglas Brown(2010:284) 참고.

로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단지 한국어의 어순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어순을 익히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4.2 초급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박성숙(2010)은 5개 대학⁵⁹⁾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 기본어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초급 단계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 기본 어순의 내용은 미흡한 편이라고 하였다.

장미라(2008)는 학습 단계에 따른 어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는 초급 단계에서 한국어 기본 구조의 어순, 주어와 목적어의 중복 구조의 어순을 제시하고, 수식 구조의 어순에 따라 관형어, 관형절, 부사어의 수식을 교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초급 단계의 어순 교육 내용은 다음<표 4-1>과 같다.

<표 4-1>장미라(2008)의 초급 단계 어순 교육 내용

기본 구조	[주어+[(목적어)+[서술어]]]
수식 구조	[관형어+{주어/목적어}], [부사어+서술어]
중복 구조	[{주어/목적어}+{주어+목적어}]

김왕규(2001)의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초급 총괄 기준과 문법 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총괄 기준에 제시된 기본 문법의 내용은 한국어 문장 구조, 문장의 종류, 격조사를 포함한다. 문법 평가 내용에서의 한국어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라고 하였다. 한국어 능력

59) 경희대학교 교재 초급 1,2 (2008), 고려대학교 교재 초급 1,2 (2008), 서강대학교 교재 초급 1,2 (2008), 서울대학교 교재 초급 1,2 (2008), 연세대학교 교재 1,2 (2008).

시험 2급 총괄 기준 및 문법 평가 내용은 1급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생활 범위가 넓어졌다. 2급 문법 평가 내용은 관형형, 용언의 부사형, 보조 용언, 높임법의 문법 항목을 포함하였다.

초급 한국어 어순 교육의 내용과 초급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본다면 교사는 초급 학습자에게 가장 먼저 한국어의 기본 어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격조사, 관형어 및 부사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순 교육의 방향과 베트남인 학습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3장에서 살펴본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보면 부사어, 그 중에서도 부사구 내부의 피수식어와 부사어의 어순 그리고 부사어 간의 어순에 관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관형어 수식 어순에 관한 수식하는 말과 수식받는 말 사이의 관계도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어순 교육 내용은 어순 차이, 기본 어순, 수식어-피수식어 어순(관형어의 수식 어순, 부사어의 수식 어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어순 차이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은 모국어와의 어순 차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순 교육이 초급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학습자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SVO형에 속해 있는 베트남어는 고립어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형태 변화가 없고,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문법적 특성이 나타난다. 베트남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어는 서술어의 앞에 있고, 목적어는 동사의 뒤에 있고,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뒤에 있다.

반면에 SOV형에 속해 있는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성을 가지기에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형태의 첨가어적 특성으로 어순 배열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렇지만 서술어는 반드시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문말 제약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어순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관형어와 체언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사어의 어순도 자유어순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즉, 일부 부사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사어에서 어순의 제약이 나타난다.

4.2.2 기본 어순

계통적으로 언어 간의 어순 차이를 설명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것이 서술어와 목적어의 상대적 위치이다. 그렇지만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국부적인 기술만으로는 계통이 다르며 유형이 다른 언어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서 2.3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같이 문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의 용어와 문장 성분을 보는 방식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대조분석에 기반을 둔 어순 교육과 이를 위한 기본 문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2.3.1에서 언급된 한국어 어순 틀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주어는 문두에 위치한다. 제1형의 '주어-서술어' 문장 구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SV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나는 웃는다.'나 'Tôi cười.'는 동일한 어순의 배열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베트남어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서술어 자리에 동사 이외에도 '형용사', '명사+이다'가 위치할 수 있는데 '명사+이다'의 경우에는 베트남어에서는 '이다-명사'어순 배열된다. 'Tôi là học sinh (저는 학생이다)'처럼 한국어의 '주어-명사-이다' 구문이 베트남어에서는 '주어-là(이다)-명사'의 구문으로 구현된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주어-서술어'의 어순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겹주어 구문 '토끼가 귀가 길다.'와 같은 문장은 학자에 따라 '귀가 길다'를 서술어를 서술절로 보아 전체 문장을 '주어-서술어'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로 보는 관점도 있다. 또는, 베트남어에서 '아니다'는 'không phải'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다'의 뜻을 가진 '(이다)'의 앞에 사용하여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N이/가 아니다' 문형을 'N이/가 N이다'의 부정형으로 보고 '이다'와 '아니다'를 '주어-서술어' 문형에 속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보어 설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으로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성분만을 보어로 보는가 하면 이외에도 '삼다', '같다', '다르다' 등과 같은 용언의 앞에 나오는 성분으로 '이/가', '에', '에게', '(으)로', '와/과' 등이 체언 혹은 명사절과 결합하여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도 본다. 또는 학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어 성분을 필수적 부사어로 보기도 한다. 기존의 현 학교 문법에서는 '-이/가 되다', '-이/가 아니다'의 앞에 위치하는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어를 한국어 문법에서 주성분으로 본다는 관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법적인 사항을 한국어 수업에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는 베트남어에서는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한국어의 보어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학습의 양이나 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가'는 형태상 보격조사이기도 하지만 주격 조사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보어의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이/가 되다', '-이/가 아니다' 등과 같이 문형으로 교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목적어 이외에 반드시 필수적 부사어를 취해야 하는 '같다', '닮다', '삼다' 등과 같은 두 자리 서술어와 '주다', '두다', '넣다' 등의 세 자리 서술어는 그 앞의 조사와 함께 통합적인 기본 문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 어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정형화되지 않아 학자에 따라 기준이 약간씩 다

르며 따라서 그 어순 체계 또한 각기 다르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기본 문형을 다음 <표 4-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4-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본 문형

- | |
|--|
| 제1형: 주어(S) - 서술어(V)
S(-은/는, -이/가) + V(-요...) |
| 제2형: 주어(S) - 부사어 (Adv) - 서술어(S)
S(-은/는, -이/가) + Adv(-에,에서,과, 와,로...) + V(-요...) |
| 제3형: 주어(S) - 목적어(O) - 서술어(V)
S(-은/는, -이/가) + O(을/를) + V(-요...) |
| 제4형: 주어(S) - 목적어1 (O1) - 목적어2(O2)- 서술어(V)
S(-은/는, -이/가) + O1(-에게) + O2(-을/를) + V(-요...) |
| 제5형: 주어(S) - 부사어(Adv) - 목적어(O) - 서술어(V)
S(-은/는, -이/가) + Adv(-에서,에..) + O(-을/를) + V(-요...) |
| 제6형: 주어(S) - 목적어(O) - 부사어(Adv) - 서술어(V)
S(-은/는, -이/가) + O(을/를) + Adv(-로) + V(-요...) |

제1형태 어순 문형으로 한국어의 '주어-서술어'의 구문을 제시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교수가 학습자들에게 주어, 서술어와 같은 언어학적 명칭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조사와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의 어순 배열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주어-서술어'의 관계는 언어학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이 지도가 가능하다. 이때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서술어 자리에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나올 수 있다고 추가 설명할 수 있다.

제2형태 어순 문형으로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문을 지도할 것이다. 기존의 어순 비교에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순서는 먼저 '주어-서술어'의 구문을 제시한 다음에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를 보면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혹은 '저는 한국에 가요.'와 같은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문을 먼저 학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 '-을/를'의 형태가 부사격 조사의 종류에 비해 고정적이고 예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학습자들이 '주어-부사어-서술어'의 어순 문형을 먼저 배웠다고 해도 학습자들의 문장 생성 능력은 '주어-목적어-서술어'가 더 정확히 나타난다.

제3형태 어순 문형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은 제1형태 어순 문형 '주어-서술어'에 이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이다. 학습자들은 이미 한국어의 주어는 문두에 위치하고 서술어는 문미에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을/를' 이외에 다른 조사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국어의 목적어 특성상 '주어-목적어-서술어'의 문형은 다른 문형에 비해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다.

제4형태 어순 문형으로 사람과 선물에 각각 참가되는 목적격 조사 '-에게'와 '-을/를'의 구별 사용과 더불어 2.2.3에서 제시한 <표 2-9> 베트남어 문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간접 목적어(간접 대상 보어)와 직접 목적어(직접 대상 보어)와의 관계를 한국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여격 '-에게'가 쓰인 목적어를 부사어로 보는 학습자도 있지만 본고는 언어보편성에 입각하고 각기 다른 두 언어의 유사점을 찾아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과중한 학습량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성 논리에 따르고자 한 것이다.

제5형태 어순 문형으로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의 구문을 제시할 것이다. 제5형태는 제2형태 어순 문형으로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문에 이어 가장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가 있는 어순 문형이다. 앞서 제2형

태와 제3형태를 통해 한국어의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나온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부사어와 목적어의 어순 배열을 인지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제시된 마지막 어순 문형에 속하는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문이다. 제6형태는 제5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이 더 어렵다.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서술부의 문장 성분 간의 어순 배열과 서술부 내부사구 안의 문법 항목에 대한 어순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의 원인은 바로 학습자들이 목적어와 부사 그리고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형태, 제5형태, 제6형태는 교수가 지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 문형을 짚어주고 이해도를 확인한 후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른 필수 부사어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에서 필수적 부사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문장을 나타내면서 주어와 서술어와의 관계에 있어 부사어가 가져야 할 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해 이찬규(1993)는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의미적인 측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서술어에 대한 의미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한자리 서술어에 관한 것은 제외하며 필수적 부사어가 나타나는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두 자리 서술어에서의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것이다.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혹은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 등의 두 개의 필수적 성분을 각각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여기서 목적어와 부사어는 서술어 안에서 서술어의 상태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이것은 반드시 할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의미적인 기능을 익혀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으로 참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세 자리 서술어에서의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것이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술어이다. 이러한 문장의 형태 역시 제4,5,6형태 어순 문형으로 해당한다. 이러한 세 가지 서술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사역동사나 사동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에 따라 문장의 어순과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의 부사어는 제5형태 어순 문형과 같이 서술어의 앞에 자리할 수도 있고 제6형태 어순 문형과 같이 목적어의 앞에 위치할 수도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이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는 고정어순의 제약이 존재한다.

기본 문형을 설명한 후에는 다양한 예문을 연습 문제로 들어주면 훨씬 더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문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수식어-피수식어 어순을 이용하여 좀 더 확장된 문형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2.3 수식어-피수식어 어순

4.2.3.1 관형어 수식 어순

베트남어에서 관형어 수식 어순은 피수식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관형어가 모두 올 수 있다. 수 관형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고 성상, 지시 관형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위치한다. 이에 반면 한국어에서는 보통 ‘관형어-명사’의 어순이 고정이 되어 있다. 이를 본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관형어 수식 어순을 학습하기가 쉽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3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관형어 수식 어순 오류가 많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어 관형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관형사형은 낯설고 어려운 지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계절-명사', '소유자 명사-의-소

유물 명사'의 어순인데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명사-관계절', '소유물 명사-의-소유자 명사'로 바뀌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따로 교수하는 것보다는 기본 문형을 언급하면서 함께 교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4.2.3.2 부사어 수식 어순

부사어는 서술어의 행위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 원인, 행위가 일어나는 데 쓰이는 도구나 재료,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베트남 부사어의 수식 어순의 경우에는 시간 부사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전도·빈도 부사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고 장소 부사어는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나와도 되고 나머지 피수식어의 뒤에 위치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부사어의 어순은 전통적으로 수식어-피수식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문장 부사어는 문장을 수식하는 문두에 나오고, 성분 부사어는 동사구의 앞에 나오고, 동사 수식 부사어는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⁶⁰⁾. 3장에서 언급한 것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부사어 어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된 것을 보인다. 또는 이 부분은 한국어 교재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은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한다.

한국어에서 부사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부사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손남익(1995b)은 부사 분류에 대한 논의는 부사를 수식 대상, 의미적 특성, 통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부사의 분류를 다음 <표 4-3>과 같다.

<표4-3> 의미에 따른 부사 분류

수식대상 기준	의미 특성 기준	통사 특성 기준
문장 부사	접속부사	제약부사

60) 국립국어원(2007:54)은 서술어의 기본적인 위치가 문장 맨 끝이므로 목적어와 보어, 필수적 부사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법부사	
성분 부사	시간부사	자유 부사
	장소부사	
	양태부사	제약 부사
	정도부사	
	상징부사	준제약부사

여기에서 통사 특성사의 제약부사와 자유부사라는 것은 어순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제약부사인 문장부사와 양태부사, 정도부사는 정해진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려우나 자유부사인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문장 안에서 어순이 자유롭고 준제약부사인 상징부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들과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지도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잘, 좀' 등과 같은 성분 부사어, '아주, 너무, 매우, 많이,' 등과 같은 정도 부사어 등의 고정어순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 47) ① 철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
 ② *철수가 잘 노래를 부른다.
- 48) ① 배가 너무 고프다.
 ② *너무 배가 고프다.
- 49) ① 철수가 쇼핑을 많이 한다.
 ② *철수가 많이 쇼핑을 한다.

특별히,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부사어 '많이' 대신 관형어 '많은'으로 대체 사용되는 오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 부사어 '많이'와 관형어 '많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빈도 부사어는 동작 동사를 수식하며 한정하면서 그 동작의 반복의 횟수를 보여주는 부사어이다. '항상, 늘, 자주, 가끔, 보통'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빈도 부사어의 경우는 (50,51)의 '보통, 항상'과 같은 빈도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0) ① 나는 보통 이를 닦고 7시쯤에 아침을 먹는다.
- ② 나는 이를 닦고 보통 7시쯤에 아침을 먹는다.
- ③ 나는 이를 닦고 7시쯤에 보통 아침을 먹는다.

- 51) ① 나는 항상 아침을 먹는다.
- ② 나는 아침을 항상 먹는다.

또는, 시간 부사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위치를 명시해주는 부사어를 말한다. 그 예로 '지금, 당장, 방금, 요즘' 등이 있다. 이러한 시간 부사어도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다. (52)에서 '우리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간적인 배경을 생각해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①,③의 경우도 빈도 부사어와 같이 시간 부사어에 초점이 놓인 유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본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52) ① 지금 우리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 ② 우리 엄마는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 ③ 우리 엄마는 저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는 한 문장에 중복되어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어순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도-상태'의 부사어의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 또는 시간 부사어가 장소 부사어 앞에 놓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⁶¹⁾.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과 관련해서는 서술어 중심의 문형과 조사, 활용 등의 문법 항목에 초점을 맞춰 교재가 편찬되어 왔으므로 대부분의 어순의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또는 학교마다 다른 교재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어순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순 교육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수업 때마다 나오는 간단한 어휘와 문장을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단계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교사들이 제시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결합하여 한국어 지도 안에 적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61) 2.3.3에서 제시한 <표14>를 참고.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유형을 각각 살펴보고 두 언어의 어순을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글쓰기와 구두 인터뷰에서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 연구,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문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에 관한 연구들 바탕으로 두 언어의 어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문장 성분의 본포를 정리하였다. 언어유형론 관점에서 두 언어를 크게 <기본 어순>, <주성분과 부속성분 간의>, <부속성분 간의>, <어순의 변화 가능성>의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서 대조·분석하였다.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에 속하여 수식어가 항상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격조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어의 기본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고 수식어는 대부분 피수식어의 뒤에 위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어는 조사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비해 고정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베트남에서 학습하고 있는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글쓰기와 구두 인터뷰에서 한국어 어순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과 구두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어순상의 특성은 거의 일치한다.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들이 보인 어순 오류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서술부의 문장 성분 간의 어순 배열과 서술부 내 부사구 안의 문법 항목에 대한 어순 오류이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어순교육 원리를 파악하고 초급 한국어 어

순 교육 내용과 초급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기준, 또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어순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은 교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단지 학습자에게 한국어 어순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어순을 익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어순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본 문형의 제시에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이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해 기본 문형을 재정리하여 어순의 재배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를 통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묘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고찰과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어순 교육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곽새라. (2009). 페르시아어 어순 유형론과 통사적 분석. 『중동연구』, 28(2), 45-64.
- 현완송. (1998). 기능적 어순 원리. 『인문학연구』, 4, 283-300.
- 한선경. (2014). 태국어 학습자의 태국어 어순 습득 양상연구: 어순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0(2), 242-268.
- 석주연. (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교육』, 16-1, 169-1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보영. (2020). 한국어 학습자의 어순 오류 양상 연구: 숙달도와 제1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6(1), 71-104.
- 허철구. (2018). 중국인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한국어 어순의 학습 양상. 『돈안어문학』, 제34집, 255-288.
- 유형선. (2008). 한국어 오류 유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41, 357-380.
- 장미라. (2008). 문장 구조 중심의 한국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Nguyen Bao Yen. (2018).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의 유형적 대조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Do Mai Truong Ca. (2019).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장구성 대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혜정. (2012). 한국어와 중국어 어순 대조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썬티타인. (2015).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대조연구: 문장 성분의 어순과 구의 어순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선. (2014).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대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수언프영. (2004).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연숙. (2019).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문장 구성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상. (2001). 한국어와 베트남어와의 어순 비교 연구: 구와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숙.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 (2016). 영어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목자. (2013).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엔느넛람. (202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조사 오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상운. (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경어법 사용의 오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령. (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혜진. (2020).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연구: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연. (2014).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숙향. (2007). 오류 분석을 통한 연어 교수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

-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희. (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다' 구문의 부사 어순 제약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지. (2013).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NGUYEN THI TINH. (2022).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본관. (2015). 『한국어 문법 청론 I』. 서울: 임동규.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 남기심·고영근. (2014).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배주채. (2019). 『한국어 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 이익갑. (2004).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정목. (2017). 『한국어의 문장 구조』. 서울: 역락.
- 화국정. (2009). 『국어 통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서울: 제이앤씨.
- 허용·강현화·고명근·김미옥·김선정·김재옥·박동호. (2019). 『한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 Lindsay J. Whaley. 김기혁 역. (2010). 『언어 유형론』. 서울: 소통.
- H. Douglas Brown. 이홍수·박주경·이병민 등 공역. (2010).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이희자. (2007). 『선생님을 위한 문법책 1 문장』. 서울: 박영률.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 임홍빈. (2004).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교

육인적자원부.

김왕규 외. (2001).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 국외문헌

안경환. (1996). Trật tự từ trong tiếng Hàn so sánh với tiếng Việt. 호찌
민 국립대학교 부박사학위 논문.

Phạm Thị Hà. (2017). Câu đảo ngữ tiếng Anh và tiếng Việt. 후에 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Diệp Quang Ban. (2004). 『Ngữ pháp tiếng Việt』. 하노이: 교육 출판사.

Nguyễn Tài Cẩn. (1996). 『Ngữ pháp tiếng Việt』. 하노이: 하노이 국립
대학교 출판사.

Nguyễn Văn Hiệp. (2009). 『Quốc ngữ hiện đại』. 하노이: 교육 출판사.

Đoàn Thiện Thuật. (1976). 『Ngữ âm tiếng Việt』. 하노이: 하노이 국립
대학교 출판사.

Nguyễn Văn Phúc. (2005). 『Ngữ âm tiếng Việt thực hành』. 하노이: 하
노이 국립대학교 출판사.

Đào Minh Thu, Đào Minh Ngọc, Nguyễn Mai Vân, Lê Kim Ngân, Lê
Thanh Hương, Nguyễn Phương Thái, Đỗ Bá Lâm. (2009).

『Tập quy tắc cú pháp Tiếng Việt』. Báo cáo SP8.5.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Word Order for Vietnamese at the Beginning Level

Nguyen, Thi Linh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Vietnamese word order for Vietnamese learning Korean at the beginning level,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word ord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d to collect and analyze the word order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beginner learner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nd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word order of Korean and Vietnamese. And the research object and method of this thesis were described.

In Chapter 2, the word order of Korean and Vietnamese was compared. First, the concept and type of word order were examined, and the basic word order in sentence types in Korean and Vietnamese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word order of Korean and Vietnamese was compared.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beginner learners' Korean word order. First, the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were described. Next, the analysis method and analysis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were described. Through the collected data,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word order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difficulty of learning due to word order differences.

In Chapter 4, based on the results analyzed in Chapter 3, the principles of Korean word-order education were examined and the contents of Korean word-order education were calculated.

In Chapter 5,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s a conclusion.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identified learners' need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word order to improve expression abi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d order by type,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word order errors by Vietnamese beginner learners were word order placement between sentence components in the description and word order errors in grammar items in the adverbial phrase in the description.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Korean word order education for Vietnamese beginner learners were presented focusing on word order differences, basic word order, and modifier-modificand word order.

【Keywords】 word order, compare, education list